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昌龍

口碑文學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原型

1995 年 12 月

漢城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金 必 來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昌龍

口碑文學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原型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5 年 12 月

漢城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金 必 來

金必來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1995 年 12 月

審查委員長 鄭後浚 

審查委員 金 亨 勳 

審查委員 慎 慶 淑 

漢城大學校大學院

國文要約

본 논문은 說話, 民謠, 俗談, 民俗 등 口碑文學 제반에 걸쳐서 나타난 호랑이의 原型(Archetype)과 그 原型을 토대로 표출된 한국인의 의식과 思想의 고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호랑이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原型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說話 속 호랑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開國神話인 檀君神話에서부터 호랑이는 조급과 패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온다. 虎景과 甄萱神話에서는 호랑이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오지만, 이 두 神話는 이미 신화의 시대가 소멸된 이후에 나온 조작된 신화이므로 한국인의 호랑이에 대한 原觀念과는 거리가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傳說에서는 人物英雄, 虎患, 報恩, 加護, 遁甲傳說 등으로 유형을 분류한 후 호랑이의 原型을 살펴보았는데, 孝子와 烈女 등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가호담 속에 나오는 호랑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로 볼 수가 없었으므로 傳說에서도 역시 호랑이의 원형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랑이 원형의 부정적인 인식은 유사한 내용의 中國傳說들과 비교를 통해서 볼 때에도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춘 논리라고 생각된다. 民譚 쪽으로 들어 와서는 호랑이의 잔인, 영کم, 교활 등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심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 民譚은 설화 장르 중에서 대상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한 채 전승되는 장르이므로, 이는 호랑이에 대한 한국인의 원형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바이라 하겠다. 호랑이는 비단 설화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비문학 장르인 민요, 속담, 무속 등에서 나타난 바를 살펴보다도 역시 부정적인 면이 강한 채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호랑이의 부정적인 원형을 토대로 표출된 한국인의 의식과 思想을 論究한 결과 어느 장르, 어느 유형을 막론하고 가장 강하게 드러난 사상은 人本主義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군신화에서부터 민담에 이르기까지 결코 호

랑이가 인간보다 우위에 서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고, 실제로 한반도 내에서 호랑이를 神으로 모셨다는 예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아무리 타당한 동기가 있다 할찌라도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볼 때에도 강력한 인본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佛敎가 융성하던 시대에는 불교적 知恩報恩의 사상이 강했음을 보은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儒敎가 융성하던 시대에는 유교적 孝烈思想이 강하게 드러났음을 볼 수 있다. 획일적이다시피 호랑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민담을 통해서, 불의롭고 강한 世界와의 투쟁에서 정의롭고 약한 自我가 결국은 승리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강인하고 끈질긴 民衆思想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설화를 통한 호랑이의 時代的 변천상은 신화시대의 부정적인 모습을 거쳐, 시대적 상화과 조류에 간섭을 많이 받는 전설의 시대로 오면서 약간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형이 가해진 뒤, 다시 민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정적인 원형이 되살아났다고 할 수 있다.

- 目 次 -

國文要約	
I. 緒 論	1
1. 研究史 概觀	1
2. 研究의 目的과 方法	4
II. 口碑文學 속에 나오는 호랑이의 諸樣相	6
1. 說話 속에 나오는 호랑이	6
(1) 神話 속의 호랑이	6
(2) 傳說 속의 호랑이	12
(3) 民譚 속의 호랑이	47
2. 民謠 속에 나오는 호랑이	53
3. 俗談 속에 나오는 호랑이	56
4. 巫俗에 나오는 호랑이	59
(1) 山神靈으로서의 호랑이	59
(2) 辟邪進慶으로서의 호랑이	60
(3) 범곳에서의 호랑이	61
III. 호랑이의 原型과 韓國人의 思想考察	63
1. 호랑이說話 속에 나타난 人本思想	63
2. 호랑이說話 속에 나타난 報恩思想	71
3. 호랑이說話 속에 나타난 孝思想	74
4. 호랑이說話 속에 나타난 民衆思想	80
5. 호랑이原型的의 時代的 變遷	84
IV. 結 論	87
參考文獻	
英文抄錄	

I. 緒 論

1. 研究史 概觀

일찍이 六堂 崔南善은 “범 이야기 수요 많기로 朝鮮만한 데가 없으려니와 그것만 듣기 좋아하긴들 朝鮮만한 데가 있을 것인가. 印度나 그 외 어떤 나라가 있다 해도 범 이야기 하나만으로 다 朝鮮의 敵이 아니다. 범 이야기만을 모아서 《千一夜話》, 《太平廣記》, 《데카메론》 등 이런 類의 책을 꾸밀 나라는 세계가 넓다 해도 오직 朝鮮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¹⁾

이 말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호랑이들이 그만큼 많이 살았었다라는 말이 되겠고, 실제로 우리 나라의 옛 文獻들이라든가 野談 說話集에서 散見되는 호랑이에 관한 記錄이랄까 이야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近者에 이르러서는 호랑이에 관한 事項만으로 이루어진 책들도 數卷 간행된 것만 보더라도 韓民族과 호랑이 사이에 관계하는 밀접도를 感知할 수가 있겠다.²⁾

이에 따라 호랑이 說話를 다룬 연구들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를 概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張德順은 《韓國說話文學研究》에서 호랑이說話를 孝烈傳說, 報恩傳說, 神異傳說, 民譚 등으로 類型을 정리한 뒤 각 類型에 해당되는 설화들을 제시하여 傳說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들은 加害를 하거나 혹은 협조를 하는 호랑

1) 崔南善, 「朝鮮歷史 及 民俗史上의 虎」, 《六堂崔南善全集(2)》, 玄岩社, 1973, 476쪽.

2) 호랑이에 관한 기록만으로 엮어진 책들로는 孫道心の 《호랑이》(서울신문사, 1974), 김호근·윤열수의 《한국 호랑이》(悅話堂, 1986), 韓相壽의 《韓國호랑이 說話集》(文志社, 1987), 李家源의 《조선 호랑이 이야기》(학민사, 1993) 등이 있다.

이라는 것을 밝히고 民譚에 나오는 호랑이들은 이와는 다르게 매우 어리석고 겁쟁이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³⁾ 柳增善은 「虎狼文學과 民俗」에서 설화 뿐만이 아니라 俗談, 民俗과 같은 其他 口碑文學 장르와 古代小說 속의 호랑이 모습까지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⁴⁾ 印權煥 역시 柳增善과 마찬가지로 民俗學的인 관점에서 호랑이說話를 연구하였고,⁵⁾ 李符永은 「호랑이와 세 아이」, 「죽음과 救援의 象徴」양 편의 論文을 통해 호랑이의 의미를 어머니의 無意識的 측면에 자리 잡은 파괴적 경향의 표현으로 파악하여 호랑이에 대한 우리 나라 사람의 감정을 좋으면서 싫고 무서우면서 우러러보는 兩價性의 감정으로 파악하였다.⁶⁾ 黃湏江은 「韓國民族說話와 호랑이」에서 李符永과 마찬가지로 호랑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감정을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이 서로 교차하는 矛盾性 併存의 태도로 이해를 했다.⁷⁾ 成耆說은 「說話 ‘호랑이 담배 피우게 된 來歷’의 경우」에서 孝子 호랑이傳說과 中國의 李徵說話를 비교하여 孝子 호랑이傳說이 李徵說話로부터 영향받은 바와 變異樣態의 특성을 고찰하였다.⁸⁾ 金善豊은 「江陵 虎狼說話 考」에서 民俗學的 考察을 통해 샤머니즘적 山岳崇拜思想과 결부된 호랑이가 山神에서 山神의 使者로 변모하게 된 이유를 認知의 발달로 설명하였다.⁹⁾ 崔來沃은 「효자호랑이 傳說」에서 효자호랑이가 悲劇的 結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의 타당한 분석을 통하여 論證하고 있다.¹⁰⁾ 李樹鳳은 「忠北의 虎譚研究」에서 호랑이를 忠北의 지역적 특성과 연결하여 韓國

3)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8.

4) 柳增善, 「虎狼文學과 民俗」, 《語文學 14號》, 韓國語文學會, 1966.

5) 印權煥, 「韓國 民俗에 나타난 호랑이」, 《敎養 8》, 高麗大學校, 1971.

6) 李符永, 「호랑이와 세 아이」, 《文學思想》 4호, 文學思想社, 1973.

_____, 「죽음과 救援의 象徴」, 같은 책 5호.

7) 黃湏江, 「韓國民族說話와 호랑이」, 《民俗文學研究》, 正音社, 1975.

8) 成耆說, 「說話 호랑이 담배 피우게 된 來歷’의 경우」,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一潮閣, 1976.

9) 金善豊, 「江陵 虎狼說話 考」, 《새국어교육》 18~20合集, 한국국어교육학회, 1974.

10) 崔來沃, 「효자호랑이 傳說」, 《韓國口碑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1.

人的 호랑이에 대한 原觀念을 神靈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¹¹⁾ 許椿은 「說話와 古小說의 虎」에서 호랑이를 惡虎, 善虎, 痴虎, 君虎로 분류한 후 민담 속의 도깨비와 龍과의 비교 고찰을 試圖하고 있다.¹²⁾ 李虎周는 「호랑이 說話에 나타난 韓國人의 意識 考察」에서 호랑이의 樣相을 山神虎, 孝感虎, 報恩虎, 加害虎, 被害虎, 痴愚虎로 분류한 뒤 이들 각 樣相에서 보이는 韓國人의 意識을 崇天意識, 孝意識, 報恩意識, 被害意識, 智略意識이라고 정한 뒤 詳論하고 있다.¹³⁾ 黃貞化는 「韓國의 호랑이 民譚 研究」에서 黃浪江, 李符永과는 다르게 호랑이의 象徵體系를 긍정적인 모습과 中間子的 모습,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의 三元的 체계로 파악하였다.¹⁴⁾ 羅景洙는 「男妹日月說話의 研究」에서 男妹日月說話를 神話的으로 해석하여 설화의 構造를 順次的 敘事構造와 並列的 敘事構造로 구분 분석하여 호랑이의 象徵體系와 주제를 밝혔다.¹⁵⁾ 鄭相珍은 「說話 속에 投影된 動物觀과 그 基底」에서 《三國遺事》所在의 설화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世界觀을 피력하고 있다.¹⁶⁾ 李泰文은 「세계인식의 두가지 태도」에서 男妹日月說話는 積極的 世界인식의 表象으로, 팔죽 쑨는 할머니와 호랑이說話는 消極的 世界인식의 表象으로 구분하여 論했고,¹⁷⁾ 金文善은 「호랑이 報恩說話의 傳承樣相과 形成過程」에서 報恩譚의 유형을 山神陰助型, 明堂發福型, 名醫利世型, 交遊後

11) 李樹鳳, 「忠北의 虎談研究」, 《새터 姜漢泳教授 古稀紀念 韓國판소리·古典文學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3.

12) 許椿, 「說話와 古小說의 虎」, 《연세어문학 18집》, 1985.

13) 李虎周, 「호랑이 說話에 나타난 韓國人의 意識 考察」,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14) 黃貞化, 「韓國의 호랑이 民譚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15) 羅景洙, 「男妹日月說話의 研究」, 《語文論集》 10, 11합병, 全南大, 1989.

16) 鄭相珍, 「說話 속에 投影된 動物觀과 그 基底」, 《牛岩語文論集》 1권, 釜山 外國語大 國文科, 1991.

17) 李泰文, 「세계인식의 두가지 태도」, 《열상고전연구》 4집, 연세대학교, 1991.

援型, 女人求得型 등으로 자세히 분류한 후 동물 報恩說話는 神格을 가진 동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인간들의 소망이 일치하여 만들어졌다고 논술한다. 18) 이상으로 호랑이설화에 관한 연구를 대략 검토해본 결과, 初期의 연구는 호랑이설화의 유형 분류와 내용소개에 치중한 감이 크며, 점차 후반기로 올수록 설화의 構造分析에 비중을 두고 연구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설화와 中國說話와의 관계를 比較文學的 시각에서 언급한 연구가 부족하고,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 고찰이 설화에만 편중되어 있고 여타 口碑文學 속에 나타난 이미지는 소홀시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事項이라고 할 수 있다.

2. 研究의 目的과 方法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호랑이라는 동물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不可分の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論文에서는 韓民族의 관념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호랑이에 대한 原型(Archetype)의 抽出을 一次 目標로 한다. 호랑이에 대한 원형연구로는 黃汎江, 李符永, 黃貞化 등의 연구가 있지만¹⁹⁾ 그 연구의 성과와 결론들을 그대로 답습, 재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다른 방향, 즉 호랑이의 原型을 二重의 兩價性이라든가 三元的 상징체제로 파악하기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假說을 설정하게 된 까닭으로는 실제로 본 論文을 위해 筆者가 나름대로 호랑이의 이미지 통계를 내어본 결과, 口碑說話 424편 중 307편이 虎患을 당한다든지, 우둔하고 포악한 면을 노출시킨다든지 등의 부

18) 金文善, 「호랑이 報恩說話의 傳承樣相과 形成過程」, 《靑荷成博士耆兆先生 華甲紀念論叢》, 1993.

19) 앞의 註 6), 7), 14) 참조.

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바탕으로 한 假說이다.²⁰⁾ 따라서 호랑이에 대한 우리의 原型은 존경심이 앞서는 긍정적인 관념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부정적 관념이 훨씬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假說을 세워 이를 토대로 우선은 神話, 傳說, 民譚 등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고, 그밖의 民謠, 俗談, 巫俗 등 다른 口碑文學 장르에서는 호랑이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窺察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호랑이의 原型을 토대로 한국인의 思想과 세계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설화와 비슷한 유형의 중국설화를 비교 고찰하여 호랑이의 原型을 보다 확실하게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되겠으나 호랑이 이미지의 時代的 변모를 古代小說 등 관련문학 속에 나오는 호랑이의 모습과 비교하여 試考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論文은 호랑이설화의 文學的 해석보다는 原型 추출에 비중을 두었기때문에 사실적인 단순 捕虎譚이라든가 笑譚 등에 이르기까지, 비록 문학성은 적다 하더라도 호랑이가 등장하는 설화들은 제외하는 것 없이 모두 다루었음을 밝혀 둔다. 연구 대상 자료로 口碑說話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발간한 《韓國口碑文學大系》를-이하 《口碑文學大系》로 약칭-主資料로 삼았고, 文獻說話는 《三國遺事》와 《於于野談》, 《靑丘野談》, 《海東異蹟》 등 朝鮮朝에 편찬된 문헌설화집을 主資料로 삼았다.

20) 口碑說話 424편은 《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나오는 호랑이 관련 설화의 집계이다. 個中에는 같은 내용의 설화가 상당수 중복되고는 있으나 지역적 분포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밝혀둔다. 그리고 善虎냐, 惡虎냐의 논란이 일 수 있는 黃八道傳說과 虎口拔釵譚 속의 호랑이는 본 論文의 論旨에 맞게 일단 惡虎로 규정한 후 계산한 집계임도 아울러 밝힌다.

Ⅱ. 口碑文學 속에 나오는 호랑이의 諸樣相

본 란에서는 說話를 중심으로 하여 民謠, 俗談, 巫俗 등 구비문학 제반에 걸쳐서 호랑이의 原型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중 설화의 경우에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神話, 傳說, 民譚의 3分法을 취하여 각 장르별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 설화들을 일일이 例擧하여 호랑이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心象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論究해 보고자 한다.

1. 說話 속에 나오는 호랑이

(1) 神話 속의 호랑이

神話의 분류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神聖성이 인정되는 建國神話만을 다루기로 하고, 文化 柳氏나 順興 安氏說話와 같이 씨족 단위에서만 神聖성이 인정되는 씨족始祖神話는 傳說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한다.²¹⁾ 또한 워낙 후대에 나온 신화라 혹 論者에 따라서는 신화냐, 전설이냐의 논란이 일 수 있겠으나 檀君, 東明, 赫居世, 首露神話와 마찬가지로 建國神話라는 측면에서 호랑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高麗 太祖 王建의 5代祖인 虎景의 神話와 後百濟를 建國한 甄萱神話까지를 일단 신화의 범주로 포함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1) 檀君神話 속의 호랑이

檀君神話 속에 나타나는 호랑이의 이미지는 조급과 패배라는 부정적 이미

21)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二友, 46쪽의 神話分類表 참고, 1975.

지로 나타난다.²²⁾

“이때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神雄, 즉 桓雄에게 빌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이때 神雄이 신령스러운 쑥 한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동안 日光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곰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三七日(21日)동안 忌하니 곰은 女子의 몸으로 변했으나 범은 忌를 잘못해서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못했다. 雄女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檀樹 밑에서 아기 배기를 祝願했다. 桓雄이 잠시 거짓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孕胎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檀君王儉이라 한 것이다.”²³⁾

위 설화에서 보다시피 호랑이는 곰과 함께 사람되기를 원해 神의 계율에 따라 굴 속에서 마늘과 쑥만으로 견디어 내야하는 禁忌에 도전하나 조금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만다. 더군다나 애초에 桓雄이 명령한 100일에 훨씬 못미치는 21일만에 곰은 人身을 얻는데 성공하는 것을 볼 때에 호랑이의 신경질적이고 참을성 없는 태도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위의 설화를 두고 學者들 사이에 檀君神話는 古代 北方 原始民族의 토tem 신앙의 표현이라는 학설과 토tem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22) 《韓國의 상징문화사전》, 東亞出版社, 1992, 338쪽.

23) 《三國遺事》紀異 第一, 古朝鮮, 李民樹 譯, 乙酉文化社, 1983.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檀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金廷鶴은 북방민족의 토템동물 중에 곰의 崇拜가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음을 보아 곰 토템이 북방 아시아 여러 민족의 보편된 신앙임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檀君神話에 있어서의 곰 토템이즘도 이러한 북방문화의 한 분포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고,²⁴⁾ 李家源 역시 이는 당시 原始 檀樹林 속에서 범과 곰을 숭배하는 두 개의 부족이 併棲生活을 하다가 原始 農業 經濟의 主權 쟁탈전에서 熊系의 부족에게 失敗하여 虎系의 부족은 드디어 驅逐을 당한 것이다. 그리하여 熊系에서 專制酋長이 세습하여 내려왔으므로 곰에 대한 설화, 전설은 이로써 끝나 버리고 虎系에 대하여서는 수많은 설화, 전설을 남겼던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이에 대한 反論도 만만치 않으니, 張德順은 檀君神話를 宗教 人類學的인 면에서 곰 토템이즘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꼭 희망적이기는 하나 이 신화가 곰 토템을 기본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 같을 뿐만 아니라 民俗學的으로 곰 토템이즘을 연결시킬만한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한다.²⁶⁾ 任哲宰도 檀君神話의 곰과 호랑이를 실제의 곰과 호랑이로 보지 않고 곰 토템 씨족과 호랑이 토템 씨족으로 보고 桓雄族이 그의 국토경영에 있어서 곰 토템 씨족과 호랑이 토템 씨족을 교섭하였는데 곰 씨족은 옹했으나 호랑이 씨족은 불옹했다라는 견해²⁷⁾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古代社會에 토템이즘 현상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그 흔적이라도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인데, 우리 나라의 여러 族譜를 훑어보아도 동물을 祖上으로 삼은 姓氏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토템이즘적 문화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²⁸⁾ 李御寧 역시 토템이즘이란 한 社會나 개인이 동물이나 自然

24)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4, 347~348쪽.

25)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乙酉文化社, 1965, 506쪽.

26) 梁在淵, 張德順, 任東權, 崔吉城 共著, 《韓國風俗誌》, 乙酉文化社, 1971, 170쪽.

27) 崔南善, 앞의 책, 485쪽.

物과 맺는 崇拜關係, 혹은 親族關係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禁忌시되는 祭儀를 통하여서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²⁹⁾, 檀君神話의 곰은 인간의 숭배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숭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템은 禁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를 숭배하는 인도인들은 쇠고기를 먹지 못하는 禁忌가 생기는데 우리는 옛부터 곰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음을 들어 토템이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³⁰⁾ 그러면서 그는 뒤이어 말하기를 호랑이는 매서운 이빨과 勇猛을 가진 투쟁의 상징이요 動的인 征服者인 반면, 곰은 힘을 안으로 간직한 자이며 仁者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곰의 상징체계는 후에 선비의 조용한 表象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하여 우리 민족은 호랑이와 같은 투쟁의 가치관보다는 참을성과 순박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겼던 민족이라고 주장한다.³¹⁾ 어쨌든 檀君神話가 토템적 문화의 전통이든 아니든간에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開國神話에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2) 高麗肇國神話 속의 호랑이

《高麗史》高麗世系에 보면 高麗 太祖 王建의 5代祖인 虎景에 관한 신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虎景은)활을 잘 쏘고 사냥을 일삼아 즐겼다. 하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아홉과 함께 매를 잡으려고 平那山으로 사냥을 갔다. 마침 날이 저물어 한 바위 굴 속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28) 任哲宰, 「호랑이에 대한 韓國人の 생각」, 《한국 호랑이》, 悅話堂, 1986, 14쪽.

29)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토데미즘 項.

30) 李御寧, 《韓國人の 神話》, 瑞文文庫, 1972, 23쪽.

31) 李御寧, 같은 책, 24쪽.

달려들어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열 사람은 서로 돌아보며 의논했다.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각자 자기의 冠을 내던져 호랑이가 끌어당기는 冠 임자가 잡혀 먹히기로 하자.

마침내 모두 冠을 내던지자, 호랑이는 虎景의 冠을 끌어당겼다. 이에 虎景은 달려 나가서 호랑이와 싸우고자 했다. 그런데 문득 호랑이는 간 곳 없고 뒤이어 동굴이 무너져 동굴 속에 남아 있던 아홉 사람은 모두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호경은 平那郡으로 돌아와 이를 알린 다음, 아홉 사람을 葬事지냈다.”³²⁾

위의 설화에 나오는 호랑이는 非凡한 人物을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온다. 이 설화에서는 호랑이가 영험스러운 神異的 驚異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神格화된 山神陰助의 모습³³⁾이나 이 神話는 이미 三國의 定立과 아울러 신화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생긴³⁴⁾ 신화라는 점에서 특수 집단에 의해 造作된 신화라는 혐의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더구나 신화란 전설이나 민담과는 달리 그 神聖性으로 말미암아 개인이라든가 혹은 소집단에 의해서 쉽사리 변모가 되거나 借用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³⁵⁾ 虎景神話는 훗날 朝鮮王朝를 세운 太祖 李成桂의 高祖父인 穆祖의 설화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穆祖가 어렸을 때 樵童 6~7명과 南門 밖 물가 바위 아래로 놀러갔다.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자 나무꾼이 각자 옷을 던져 호랑이가 잡는 옷의 임자를 호랑이에게 주자고 했다. 호랑이

32) 《高麗史》, 高麗世系.

一日與洞里九人 捕鷹平那山 會 日暮 就宿岩竇 有虎當竇大吼 十人相謂曰 虎欲喰我輩 試投冠 攬者當之 遂皆投之 虎攬虎景冠 虎景出 欲與虎鬪 虎忽不見 而竇崩 九人皆不得出 虎景還告平那郡 來葬九人

33) 朴湧植, 《韓國說話의 原始宗教思想研究》, 一志社, 1984, 98쪽.

34) 張德順, 趙東一, 徐大錫, 曹喜雄 共著,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32쪽.

35) 張德順 外, 같은 책, 같은 쪽.

가 穆祖의 옷을 선택하였다. 穆祖가 호랑이 앞으로 가자 물가의 큰 바위가 갑자기 무너지니 穆祖만 죽음을 면하였다. 지금도 虎頭隕石이 냇물 속에 있다.”³⁶⁾

뿐만 아니라 虎景神話는 口碑傳說에 이르러서는 太祖 李成桂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³⁷⁾ 名醫 許浚의 전설과³⁸⁾, 최근래에 만들어진 듯한 전설인 호랑이와 버스전설에서도³⁹⁾ 유사하게 차용된다는 점으로 볼 때, 그 조작의 혐의는 더욱 짙어진다고 하겠다. 예로부터 전설이 민담화 되고, 민담이 전설화 된 예는 허다하다. 그러나 신화는 前述한 바와 같이 神聖性和 眞實性을 본질로하는 거대 집단의 無意識的 인식의 表象일 뿐만 아니라, 그 神聖示되는 이야기가 神秘롭게 초월적으로 표현되므로, 제보자나 수용자의 의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창조나 새로운 변모를 기대하기 어렵고 傳承力도 약한⁴⁰⁾ 설화장르인 만큼, 쉽사리 전설이나 민담으로 格下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신화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風俗을 고정시키고, 행위의 模範을 설정하고, 어떤 제도에 위엄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規範的 힘을 갖게 하는 社會統制의 기능이므로,⁴¹⁾ 高麗라는 새로운 王朝를 세운 王氏一族으로서는 創業 初期의 혼란상을 수습하고, 그들 지배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신화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었기에⁴²⁾ 虎景神話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高麗肇國神話에 나타난 호랑이의 이미지는 비록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라

36) 《溪西野談》，我朝穆祖，徐大錫 編著，《朝鮮朝文獻說話輯要(I)》에서 引用，集文堂，1991，311쪽.

37) 《口碑文學大系》，全北(1)，317쪽.

38) 《口碑文學大系》，京畿(4)，60쪽.

39) 《口碑文學大系》，慶北(11)，671쪽.

40) 林在海，「說話의 存在樣式과 갈래體系」，《口碑文學》8호，1985，123쪽.

41) 張德順 外，《口碑文學概說》，33쪽.

42) “..... 權力的 支配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神話, 宣傳, 심볼 등과 같은 手段에 의하여 強化시키고,.....”

《哲學大事典》，學園社，1964，111쪽.

할찌라도 政治的, 人爲的으로 조작된 신화인 만큼 한민족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호랑이의 原型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3) 甄萱神話 속의 호랑이

《三國遺事》紀異 第二篇에는 甄萱의 神話가 전해진다.

“처음에 甄萱이 나서 포대기에 싸였을 때, 아버지는 들에서 밭을 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밥을 갖다 주려고 아이를 수풀 아래 놓아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젖을 먹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는 이상하게 여겼다.”⁴³⁾

甄萱神話는 신화로서 보다는 오히려 전설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⁴⁴⁾ 본 논문에서는 檀君, 虎景과 마찬가지로 建國始祖의 설화라는 점에서 신화로 분류한다.

甄萱神話 역시 虎景神話와 마찬가지로 비범한 人才를 알아 보고 보호해주는 영험한 호랑이로 긍정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甄萱神話도 이미 신화의 시대가 終了한 후에 나타난 신화라는 점에서 虎景神話와 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甄萱神話의 호랑이도 한민족 공통의 原型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傳說 속의 호랑이

43) 《三國遺事》卷2 紀異 第二, 後百濟 甄萱.

初萱生孺襍時 父耕于野 母餉之 以兒置于林下 虎來乳之 鄉黨聞者異焉.

44) 崔常壽는 《韓國民間傳說集》에서 甄萱說話를 ‘지렁이의 아들’이라는 題目을 달고 傳說로 취급하고 있다.

傳說에서는 《三國遺事》에 나오는 傳說을 일단 따로 떼어놓고 연구한 다음 그 외의 전설들은 文獻傳說과 口碑傳說의 구분없이 類型別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아울러 비슷한 내용과 樣相을 보여주는 中國의 호랑이관련 전설을 소개하여 中國傳說이 우리 나라 전설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비교문학적인 검토도 試圖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전설이란 민담과는 달리, 그 분포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⁴⁵⁾ 어떻게 相互授受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연구방법이 中國의 문물을 숭상하는 事大主義的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孫晉泰는 우리 민족이 有史以來 中國으로부터 독립하여 있었지만 統一新羅 以來 거의 中國의 일부인 觀을 이루었음은 누구나 무어라 하더라도 부정치 못할 歷史的 事實이며,⁴⁶⁾ 따라서 朝鮮의 民族說話 중에도 中國의 설화와 소설 기타의 영향이 물론 許多하다고 주장했고,⁴⁷⁾ 金鉉龍 역시 우리의 過去 社會가 先進의 漢文化를 받아들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켰었다는 엄연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中國문화과의 영향관계를 論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입장이 독창성을 부인하는 수치스러운 경우는 아니니, 위대한 작가도 어느 시기에는 모방적인 경향을 띄게 되고, 이 모방적인 시기를 거쳐 차차 독창적인 것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⁴⁸⁾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언급은 당시의 사회가 中國을 중심으로 한 東北亞의 공통문화권적 사회였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본 論文은 前述한 바와도 같이 호랑이라는 연구대상의 原型抽出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고, 原型이란 인간이면 누구의 정신에나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核인 고로⁴⁹⁾ 우리 나라의 전설과 중

45)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 19쪽.

46)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6쪽.

47) 孫晉泰, 같은 책, 7쪽.

孫晉泰는 이 외에도 中國 영향의 민족설화에 대하여 大洪水傳說, 北斗七星과 短命少年說話 등 약 24項에 걸쳐서 비교 詳論하고 있다.

48)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10쪽.

국전설의 비교 검토를 통해 호랑이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도 명료한 原型抽出이라는 작업이 무리스럽고 무의미한 작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한 중국전설을 제시해 우리 전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窺察해 보고자 한다.

1) 《三國遺事》 속의 호랑이

《三國遺事》 속에 나오는 호랑이 관련 전설 내지 기록은 모두 8편이다. 그러나 그 중 2편인 檀君神話와 甄萱神話는 신화부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머지 6편만 다루기로 한다.

가) 金現感虎傳說⁵⁰⁾

《三國遺事》 卷5 感通 第7에 실려 있는 「金現感虎傳說」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新羅 元聖王 때, 2月 初8일에 興輪寺에서 殿塔을 도는 福會를 행하던 중 金現이란 젊은이가 한 處女와 마음이 맞아 情을 통하게 된 후, 處女の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 가니 그 곳은 바로 호랑이 굴이었다. 處女の 오빠들인 3형제 호랑이들에게 잡아 먹힐 뻔한 위기에 몰렸으나, 處女와 處女の 어머니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處女는 오빠들의 罪科를 대신하여 하늘로부터 벌을 대신 받게 되었음을 말한 후 金現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請願을 한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處女の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락하기에 이른 金現은 다음날 市內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는 호랑이를 잡고

49) 李符永, 《分析心理學》, 一潮閣, 1978, 85쪽.

50) 《三國遺事》 卷五, 感通 第七, 金現感虎.

는 벼슬에 오른 후 호랑이處女를 위한 虎願寺라는 寺刹을 짓고 經을 의도록 하여 자신을 위해 犧牲을 한 호랑이處女の 恩惠에 보답하고 자신의 記錄을 後世에 남겼다.”

일종의 虎化爲人傳說인 「金現感虎傳說」 속에 나오는 호랑이處女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랑하는 郎君을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흉악한 형제 호랑이들의 죄과를 대신 갚는 희생의 熱情과 聖스러움이라는⁵¹⁾ 긍정적 이미지로 나온다. 그러나 이 전설에 나오는 5마리의 호랑이들 중 인간으로 변신이 가능한 호랑이인 처녀와 처녀의 어머니만이 착한 心性을 소유하고 있고, 호랑이 원래 모습대로의 3형제 호랑이들은 獸性 그대로의 포악한 모습으로 나온다.

이러한 경우, 즉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적에는 선하고, 호랑이로 변했을 때는 악한 경우는 비단 「金現感虎傳說」 뿐만 아니라 모든 전설과 민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양순함과 짐승의 포악함을 대비시킨 人本主義的 觀念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後述하고자 한다.

「金現感虎傳說」은 후일 高麗時代로 넘어오면서 崔滋의 「虎語」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⁵²⁾ 양 설화의 비교를 위해 「虎語」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高敞에서 蓮燈會가 열리는 날, 한 스님이 어느 소년이 수상해

51) 黃湏江, 앞의 책, 152쪽.

52) 崔滋, 《補閑集》 卷下, 虎語.

흔히들 崔滋(1187)가 一然(1206)보다 時代적으로 앞선 사람이므로 一然이 崔滋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兩 설화가 모두 創作이라기 보다는 巷間의 이야기를 듣고 옮긴 採錄譚이고 金現感虎가 新羅를 배경으로 한 반면, 虎語는 高麗를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金現感虎가 虎語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 뒤를 밟아 보니 그곳은 호랑이굴이었다. 포악한 2마리의 형제 호랑이한테 스님이 害를 당할 위기에 빠질 찰나, 소년의 할머니의 도움으로 害를 면한다. 사람의 모습으로 함부로 변했다는 이유로 山神의 노여움을 산 소년은 罰로써 함정에 빠져 죽음을 당하고, 이후 소원하던 바인 사람의 모습으로 幻生하여 스님의 沙彌僧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一嚴寺라는 절의 大師가 되어 사람들을 많이 感服시켰다.”

양 설화의 공통되는 점은 내용의 흡사함은 且置하더라도 한두가지가 아닌 데 양 설화 모두 佛教思想의 布教를 위해 생성된 설화로 보이며,⁵³⁾ 양 편 모두에서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과,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良順하고 짐승 그대로의 모습일 적에는 포악한 면을 보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단, 「金現感虎傳說」 속의 호랑이처녀가 자신이 所期했던 바대로의 목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반면, 「虎語」 속의 호랑이童子는 비록 한 번 목숨을 잃은 뒤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목적인 바를 결국 성취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에도 「虎語」가 「金現感虎傳說」로부터 영향을 받은 후, 佛教思想의 浸潤이 더욱 가미된 채 나타난 전설이라고 생각된다. 「虎語」가 「金現感虎傳說」의 영향을 입은 전설이라면, 金現感虎는 中國傳說로부터 영향의 相互授受가 있었던 전설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金現感虎傳說」 바로 다음편에 同載된 「申屠澄傳說」이 사실은 우리 나라의 전설이 아니라 中國의 설화집인 《太平廣記》卷429에 所在된 中國說話라는 점과 一然이 이 양편의 전설을 비교 평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立證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⁵⁴⁾ 「申屠澄

53) 一然은 이에 대해 이르기를, “이 事蹟(金現感虎)의 顛末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을 돌 때 사람을 感動시켰고, 神效한 藥方文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구하고 절을 지어 佛戒를 講하게 했던 것이다.”(感人於旋邊佛寺中 天唱徵惡 以自代之 傳神方以救人 置精廬講佛戒)라고 하여 이 說話가 佛教 布教의 目的으로 소개된 說話임을 밝혔다.

54)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65쪽.

《太平廣記》는 北宋 太平興國 2年(977) 3월에 勅命에 의하여 翰林學士 李昉이

傳說」은 申屠澄이 野人村에 관리로 임명되어 그곳에서 閑雅한 少娘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적은 봉록으로도 아내는 알뜰히 살림을 하였고 아들, 딸까지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으나, 아내가 원래 모습인 호랑이로 변한 뒤에는 남편을 할퀴고 자식들을 모두 팽개친 채 도망을 간다는 내용이다. 또한 《太平廣記》卷 433에는 「崔蹈傳說」⁵⁵⁾이 나오는데 이 역시 「金現感虎傳說」과 내용이 아주 흡사하다.

“崔蹈란 이가 하루는 주막집에 들러 잠을 請하자 주인은 오늘 怪變이 있을 터라고 하며 만류한다. 崔蹈가 이 말을 듣지 않고 大廳에서 잠을 자는데 밤이 깊자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와 虎皮를 벗고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한 후 崔蹈와 情談을 나눈 후 결혼을 한다. 崔蹈가 科擧에 급제 한 후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옛 주막집에 들르자, 아내는 옛날 벗어 두었던 虎皮를 주어 입고 호랑이로 변한 후 남편과 자식들을 잡아먹고는 도망을 쳤다.”⁵⁶⁾

위 전설들의 차이점을 우선 살펴보면, 一然은 「金現感虎傳說」을 寸評하면서 중국설화인 「申屠澄傳說」과의 대조를 통해 짐승이 변하여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은 똑같으나 申屠澄의 범은 사람을 배반하는 詩를 주고는 으르렁거리고 할퀴면서 달아난 것이 金現의 범과는 다르니 金現의 범은 부득이 사람을 傷하게 했지만 좋은 藥方文을 가르쳐줌으로써 사람들을 구한 어진 점이 다르다라고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⁵⁷⁾ 「金現感虎傳說」은 「申屠澄傳說」, 「

대표가 되어 中國의 唐나라 以前, 古代로부터 秦, 漢, 南北朝를 거쳐 隋, 唐의 野史, 小說 등을 集大成한 說話集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傳來되었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늦어도 高麗 高宗(1213年) 以前에 輸入되어 널리 읽혀졌으리라 추측된다.(金鉉龍, 같은 책 24쪽, 39쪽)

55) 金鉉龍, 같은 책, 66쪽.

56) 《六堂 崔南善全集(5)》, 玄岩社, 1974, 141쪽에 있는 내용 요약.

「崔蹈傳說」과 영향을 授受한 후 우리 나라 당시의 社會的, 宗教的 상황과 실정에 걸맞게끔 독창적으로 변이된 전설이라고 생각된다.⁵⁸⁾ 그리고 위 전설들의 공통점이라면 「金現感虎傳說」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思料되는 2편의 중국전설 모두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한없이 善한 모습이지만, 호랑이로 변한 뒤에는 極惡無道한 부정적 모습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나) 關川公傳說

《三國遺事》에 關川公에 대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王의 代에 關川公, 林宗公, 虎林公, 廉長公, 庾信公이 있었다. 이들은 南山 于知巖에 모여서 나랏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범 한 마리가 座中에 뛰어 들었다. 여러 公들은 놀라 일어났지만 關川公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談笑하면서 범의 꼬리를 잡아 땅에 메쳐 죽였다. 關川公의 腕力이 이처럼 세어 關川公이 首席에 앉았다.”

59)

57) 《三國遺事》 金現感虎.

變爲人妾則同矣 而贈皆人詩 然後哮吼擊攫而走 與現之虎異矣 現之虎不得已而傷人 然善誘良方以救人 獸有爲人如彼者

58) 「崔蹈傳說」은 唐나라 天寶年間(742~756)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申屠澄傳說」은 唐나라 貞元 9년(794), 「金現感虎傳說」은 新羅 元聖王代(785~799)를 각각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것으로 봐서 세 전설들은 모두 同時代에 생성된 전설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놓고 볼 때에 당시의 東北亞圈域에서는 호랑이(혹은 다른 異物)가 사람으로 둔갑하는 내용의 전설이 상당히 유행했던 듯 싶다.

59) 《三國遺事》 卷一, 紀異 第一, 眞德王.

王之代有 關川公 林宗公 虎林公 庾信公 會于南山于知巖 議國事 時有大虎 走入坐間 諸公驚起 而關川公略不移動 談笑自若 捉虎尾搏 於地以殺之 臂力如此 處於席首

「關川公傳説」에 나오는 호랑이도 역시 흉포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關川公傳説」은 일종의 人物英雄傳説로 볼 수 있는데, 歴史的 인물과 관련된 호랑이설화는 거의가 호랑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인물의 됃됨이를 높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關川公傳説」역시 會議 도중 뛰어든 호랑이를 때려잡는 關川公의 모습을 통해 그의 용감한 모습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다) 曇始傳説

《三國遺事》에는 또 중국의 僧侶인 曇始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는데 다음과 같다.

“(拓跋燾가 曇始를)베어 죽이라고 命했다. 그러나 아무리 베어도 傷하지 않았다. 北園에서 기르는 범에게 주었으나 범도 역시 감히 가까이하지 못했다.”⁶⁰⁾

위의 설화는 一然이 阿道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考證을 하는 과정에서 曇始가 海東땅에 10년간 머물렀다는 기록에 着眼해 혹시 曇始가 阿道는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중에 나오는 전설이다. 이 설화에 나오는 호랑이에 대해서 대개는 인물을 알아보고 해치지않는 영험한 호랑이로 보고 있으나, 이는 誤謬인 것 같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曇始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그의 神險한 氣에 눌린 나머지 공격을 못한 것이지,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0) 《三國遺事》卷3, 興法 第 3, 阿道基羅.

..... 燾聞令斬之 屢不傷 飼北園所養虎 亦不敢近

曇始를 잡아먹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曇始傳説」에 나오는 호랑이도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曇始說話」와 같이 비범한 인물의 氣에 놀려 감히 덤비지 못하는 유형의 설화가 중국에서는 많이 流布된 듯 하니, 《事文類聚》에 「曇始說話」와 비슷한 「朱亥傳説」이 실려있다.

“(秦王이)朱亥로 하여금 구슬 한 쌍을 바치라했으나 실행치않자,秦王이大怒하여 朱亥를 호랑이 무리 가운데 앉도록 했다. 朱亥가 눈을 감은 후 호랑이를 날카롭게 노려보자 눈에서 피가 흘뿌려지매, 호랑이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⁶¹⁾

曇始나 「朱亥傳説」과 같이 비범한 인물에게 호랑이가 감히 어찌지 못하는 유형의 설화는 우리 나라에 《太平廣記》나 《事文類聚》 등과 같은 책을 통해 이미 널리 전파되었으리라 짐작되는 바, 후대에 생성된 우리 나라의 人物英雄傳説이라 할 수 있는 「姜邯贊傳説」이나 「徐花潭傳説」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라) 惠現傳説

《三國遺事》에는 또 영험한 百濟의 승려인 惠現에 대한 기록이 전해진다.

61) 不行使朱亥奉璧一雙 秦王大怒 將朱亥着虎圈中 亥瞑目視虎皆裂血出漑 虎終不敢動

《事文類聚》 虎附, 視虎皆裂.

《事文類聚》는 南宋의 祝穆이 編纂한 類書(一種의 百科事典)로서, 우리나라에 언제 輸入되었는지를 파악할만한 기록을 발견할 수는 없거니와, 이 책이 刊行된 대략 1100年代 後半 이후 本邦에 신속하게 入手되었으리라 추정된다.(金昌龍, 《韓中假傳文學의 研究》, 開文社, 1985, 89쪽.)

“惠現은 고요히 앉아 생각을 잊고 산 속에서 人生을 마쳤다. 同學들이 그 시체를 운반하여 石室 속에 모셔두었더니 범이 그 遺骸를 다 먹어버리고 다만 해골과 혀만 남겨두었다. 추위와 더위가 세 번 돌아와도 혀는 오히려 붉고 연하였다.”⁶²⁾

위의 기록으로 볼 때에도 「惠現傳説」에 나오는 호랑이 역시 부정적인 이미지로서의 호랑이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三國遺事》에 나오는 호랑이 관련 記事로 비록 호랑이가 직접 등장하는 설화는 아니지만 新羅의 마지막 왕인 敬順王 金傳와 新羅의 百姓들이 王建에게 항복할 당시 王建은 부모에 비유를 한 반면, 甄萱은 호랑이와 늑대에 견주는 것으로 볼 때에 호랑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한 단면을 간접적으로나마 體感할 수 있다.⁶³⁾ 또한 이 記事를 통해서 볼 때에도 당시 백성들의 심상에 호랑이라는 짐승이 얼마나 널리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2) 文獻·口碑傳説 속의 호랑이

《三國遺事》 외의 전설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樣相은 기존의 傳説 分類法⁶⁴⁾을 따를 경우, 본 論文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자칫 산만해지고 論脈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文獻傳説과 口碑傳説을 망라하여 기존의 전

62) 《三國遺事》 卷5, 避隱 第8, 惠現求靜.

現靜坐求忘 終于山中 同學瘞尸置石室中 虎啖盡遺骸 唯護舌存焉 三周寒暑 舌猶紅軟

63)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金傳大王.

萱氏至來也 如逢豺虎 王公至室 如見父母

64) 張德順, 曹喜雄의 傳説 分類表 등.

설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필자 나름대로 각 설화상 가장 중심되는 話素(motif) 별로 정리하여 人物英雄傳說, 虎患傳說, 報恩傳說, 加虎傳說, 遁甲傳說 등으로 유형을 분류한 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人物英雄傳說

前項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역사적 偉人과 관련된 전설 속의 호랑이들은 거의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姜邯贊, 徐花潭, 郭再佑, 李栗谷, 金應瑞, 李澄玉, 朴曄 등이고, 이들 외에도 關羽와 같은 神話的 인물들에 관한 전설도 전해진다.

① 姜邯贊傳說

《海東異蹟》에 나오는 姜邯贊에 관한 전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姜邯贊이 漢陽判官이었을 무렵, 境內에 호랑이가 많았다. 漢陽의 留守가 호랑이 때문에 근심이 대단하자, 姜邯贊이 종이에 글을 쓴 후 衙前을 시켜 某處 돌 위에 앉아 있는 2명의 老僧에게 갖다주게 하자, 老僧들이 그 글을 보고는 姜邯贊에게로 와서 東軒에 머리를 대고 조아렸다. 姜邯贊이 老僧들에게 본모습으로 化하라 命한 후, 닷새 안에 무리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 2명의 老僧이 호랑이로 변한 후 무리들을 이끌고 江을 건너갔다. 그로부터 虎患이 없어졌다.”⁶⁵⁾

또 「姜邯贊傳說」은 口碑傳說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口碑傳說에서는 같은

65) 洪萬宗, 《海東異蹟》(李錫浩 譯), 乙酉文化社, 1982, 61쪽.

호랑이 퇴치담이기는 하지만 중으로 遁甲한 호랑이가 마치 希臘神話 속의 스피크스와 같이 길목을 막고 서서 내기 바둑을 둔 뒤 지면은 잡아먹고, 이기면 길을 내어주는 짓을 하는데, 결국 姜將軍의 호령에 퇴치가 된다는⁶⁶⁾, 약간의 내용상의 변이를 일으키며 전해진다. 「姜邯贊傳說」에서도 前述한 바와 같이 호랑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점잖고 良順한 태도를 보인다.

위의 「姜邯贊傳說」을 중국설화와 비교를 해보면, 《事文類聚》에 이와 아주 酷似한 내용의 설화가 登載되어 있다.

“宋均이 九江太守로 자리를 옮기자, 그 곳에는 사나운 호랑이가 많았다. 宋均이 명령을 해서(호랑이를 잡기위한) 함정을 치우게 하자, 그 후에는 호랑이들이 서로 함께 江을 건넜다.”⁶⁷⁾

이렇게 「宋均傳說」과 「姜邯贊傳說」을 비교해 볼 때, 「姜邯贊傳說」역시 중국설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형성된 전설이라고 짐작되는 바이다. 「姜邯贊傳說」은 또 後代로 내려오면서 世祖 때의 靑年將軍 南怡의 전설과⁶⁸⁾ 英祖 때의 암호랑이가 낳은 姜氏 姓을 가진 觀察使가 호랑이들을 鴨綠江 以北으로 내몰았으나, 단지 새끼를 뺀 호랑이 한 마리만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대로 두는 바람에 朝鮮에서 호랑이들이 근절되지 못했다는 전설⁶⁹⁾로 변이 전승된다.

② 李澄玉傳說

66) 《口碑文學大系》江原(1), 574쪽.

67) 《事文類聚》虎附, 虎渡江.

宋均遷九江太守 郡多暴虎 均下令去陷穽 其後虎相與渡江

68) 孫道心, 《호랑이》, 564쪽.

69) 孫道心, 같은 책, 562쪽.

《東野彙輯》에 李澄玉의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⁷⁰⁾

“李澄玉은 梁山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용기가 뛰어났으며 그 兄 李澄石 역시 힘이 세었다. 어머니가 학질을 앓아 살아 있는 돼지를 필요로 하기에 兄弟가 나갔는데, 澄石이 그 날로 활로 돼지를 쏘아 돌아온 반면, 澄玉은 며칠 후에 빈 손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물으니, 산 채로 잡기위해 쫓아다녀 기운을 빼놓았다며 밖에서 산돼지를 들여왔다. 후에 澄玉은 世祖를 도와 李施愛의 亂을 平定하였다. 澄玉이 호랑이를 잘 잡았는데, 어느날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혀간 女人이 울고있는 것을 보고 그 호랑이를 잡은 후 배에서 시체를 꺼내 葬禮지내게 하였다.”

李澄玉은 金宗瑞의 부하로 六鎭을 설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다. 그는 首陽大君 일파가 癸酉靖難을 일으켜 金宗瑞 등을 慘殺한 후 端宗을 몰아내자, 咸吉道(咸鏡道)에서 軍士를 일으킨 다음 스스로를 大金皇帝라 칭하고 亂(1453년)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인물이다. 따라서 李澄玉은 反首陽大君派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데, 《東野彙輯》에서는 世祖를 도와 李施愛의 亂(1467)을 평정했다고 나와 있으니 이는 편찬자가 기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李澄玉傳說」은 《東稗洛誦》이란 설화집에도 내용이 실려있는데, 여기서는 산돼지를 산 채로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호랑이를 산 채로 잡는 것으로 변이되어 나타나고⁷¹⁾, 口碑傳說에서도 호랑이를 사로잡는 것으로 전승된다. 「李澄玉傳說」은 人物英雄傳說 중에서도 다른 인물들과는 약간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前述한 「姜邯贊傳說」이나 後述할 徐花潭, 李栗谷, 朴曄 등의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文班들인만큼 하나같이 지략과 위엄을 전면에

70) 《東野彙輯》은 哲宗20年(1869), 李源命이 編纂한 說話集이다.(徐大錫, 앞의 책, 579쪽 참조)

71) 徐大錫 編, 《朝鮮朝文獻說話輯要(2)》, 571쪽 참고.

내세워 사람으로 둔갑한 교활한 호랑이를 퇴치하는 전설인 반면, 「李澄玉傳說」은 李澄玉이 武班이므로 지략과 위엄보다는 실질적인 완력을 통해 짐승 그대로의 모습인 호랑이를 퇴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力士形 傳說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랑이와 관련된 力士傳說로는 「馮婦傳說」이 유명하다.

“晉나라 사람 중에 馮婦란 이가 있었는데 호랑이를 잘 때려잡았다. (馮婦가)들판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호랑이를 쫓았다. 호랑이가 산굽이를 등에 이고 있자 누구도 감히 어찌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馮婦가 오자 모두들 나아가 맞이하였다. 馮婦가 팔을 걷어부치고 수레에서 내리자 모두들 기뻐했다.”⁷²⁾

양 說話에서 보는 바와같이 李澄玉과 馮婦가 평소에 호랑이를 잘 잡았다는 대목에서 近似함을 찾을 수 있다.

③ 徐花潭傳說

〈溪西野談〉, 〈靑丘野談〉, 〈東野彙輯〉 등에 花潭 徐敬德에 관한 傳說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花潭 徐敬德은 博學多問하여 天文地理에 모두 通達하였는데 長湍에 隱居하였다. 學生들을 모아놓고 講論하는데 한 중이 절하고 지나가자 花潭이 탄식하였다. 緣由를 물으니 그 중은 謀山의 神虎로 남

72) 〈事文類聚〉 虎附, 馮婦搏虎.

晉人有馮婦者 善搏虎 則之野有衆逐虎 虎負嵎莫之 敢擾望見 馮婦移而迎之 馮婦攘臂下車 衆皆悅之

편을 맞이할 처녀 한 명을 해치러 간다고 하였다. 한 學生이 處女를 구하겠다고 나서므로 處女의 집에 가서 처녀를 방에 가둬두고 마루 위에서 佛經을 계속 읽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이 處女의 집에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하니 處女는 방에서 나오려다 기절했으며, 호랑이가 窓門을 세 번 물어뜯고는 날이 밝자 가버렸다. 그 사람이 돌아오니 花潭이 말하기를 經書 중 세 곳을 틀리게 읽어호랑이가 窓門을 세 번 깨문 것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생각해보고는 과연 잘못 읽었음을 깨달았다.”⁷³⁾

「徐花潭傳說」에서의 호랑이 역시 「姜邯贊傳說」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으로 둔갑한 채 나타나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적에는 徐花潭의 말에 고분고분하고 점잖은 태도를 유지한다. 「徐花潭傳說」은 口碑傳說에서는 호랑이를 퇴치하는 무기가 佛經에서 儒敎의 經典인 《中庸》으로 바뀌기도 하고,⁷⁴⁾ 漢方藥劑인 鏡面朱砂로 변이되어 전승되기도 한다.⁷⁵⁾

④ 李栗谷傳說⁷⁶⁾

「李栗谷傳說」은 15세에 虎食당할 八字를 타고난 李栗谷이 禍를 면하기 위해서는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세어본 결과, 1그루가 모자란 999그루이자 옆에 있던 밤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나도 밤나무’라고 말해 준 덕에 虎食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栗谷이 자신의 雅號에다가 밤 ‘栗’ 자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로서 나도밤나무由來譚의 성격을 동시에 띄기

73) 徐大錫, 앞의 책, 281쪽 참고인용.

74) 孫道心, 《호랑이》, 서울신문사, 1974, 80쪽.

75) 《口碑文學大系》, 京畿(4), 315쪽.

76) 韓相壽, 《韓國호랑이說話集》, 文志社, 1987, 106쪽.

도 한다. 이 전설에서도 역시 호랑이는 老僧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惡虎로 나온다. 여기서 栗谷이 15세에 호식을 당할 것이라는 화소는 원시종교에 있어서 成年式的 通過儀禮의 잔상으로 생각된다.⁷⁷⁾ 「李栗谷傳說」은 口碑傳說로 와서는 老僧으로 둔갑하지 않고 호랑이의 모습인 채로 나타나기도 한다.⁷⁸⁾

⑤ 郭再佑傳說⁷⁹⁾

「郭再佑傳說」은 郭再佑가 하루는 慶尙道 尙州의 山에서 무술연마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호랑이를 잡으러 단숨에 江原道 洪川까지 쫓아갔으나 그만 놓치고 말았다. 산 속 오두막집에 들러 쉬고있을 때, 그 집의 처녀가 자신의 부모가 호식을 당하였는데 郭再佑에게 자기 대신 복수를 해달라는 청함을 받고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 속으로 郭再佑가 들어갔으나 사실은 호랑이가 처녀의 부모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倭亂의 와중 속에서 처녀의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시켰었던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에서 나오는 호랑이는 英雄傳說 중에서는 특이하게도 善한 良民들을 보호하는 긍정적 이미지의 호랑이로 등장한다. 호랑이와 관련된 「郭再佑傳說」은 이외에도 1편이 더 있는데⁸⁰⁾ 앞의 전설과 이야기 구성면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江原道 洪川이 아니라 중국까지 쫓아간 것으로 나오며, 虎食한 惡虎를 발로 밟아 잡는 것으로 변이되어 전승된다.

77) 李符永, 《分析心理學》, 一潮閣, 1978, 314쪽.

“..... 原始種族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成人過程에서 보는 세가지 단계, 즉 苦痛과 죽음과 再生의 과정을 거치는 일.....”.

78) 《口碑文學大系》, 京畿(5), 316쪽.

79) 李家源, 《조선평랑이이야기》, 학민사, 1993, 185쪽.

80) 《口碑文學大系》, 京畿(5), 494쪽.

⑥ 朴曄傳說

《溪西野談》, 《靑丘野談》 등에 朝鮮朝 光海君 때의 天文地理에 통달한 인물인 朴曄에 관한 傳說이 다음처럼 전해진다.

“朴曄이 關西지방에서 按察仕를 맡았는데 親知 宰相이 자신의 아들에게 큰 厄이 있다고 그에게 말졌다. 어느날 朴曄이 그 아이를 노새에 태워 보내면서, 한 절에서 虎皮를 얻어 뒤집어 쓴 후 老僧이 달라고 해도 내주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그 아이가 노새를 타고 가서 朴曄이 시킨대로 하니 老僧이 호랑이로 변하여 虎皮를 뺏으려다 실패하고서는 다시 熊으로 변하여 지축에 글을 써주며 앞으로는 虎患이 없을 것이라 했다. 호랑이들이 아이가 내보이는 지축을 보고 모두 피했는데 한 호랑이만 피하지 않으므로 老僧이 있는 절로 데려갔다. 老僧이 그 호랑이를 꾸짖고 대신 甌笠 쓴 사람을 잡아 먹으라고 하였다. 甌笠을 쓴 사람은 砲手였으며 호랑이를 쏘아 죽였다. 그 아이가 나중에 顯達하였다.”⁸¹⁾

「朴曄傳說」에서도 예외없이 호랑이는 늙은 熊으로 둔갑하고 있으며, 사람의 모습일 때는 매우 紳士的인 모습이다.

⑦ 金應瑞傳說⁸²⁾

「金應瑞傳說」은 平安道 龍崗에 있는 처녀를 잡아먹으면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을 山神靈으로부터 호랑이가 전해듣고는 熊으로 둔갑한 후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으나, 그 여자의 뺏 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엄청난 氣에 놀린

81) 《溪西野談》, 朴曄知按關西(徐大錫 編, 앞의 책, 282쪽 참고인용).

82) 李家源, 《조선희랑이이야기》, 194쪽.

나머지 그만 죽고 말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천하장사 金應瑞였다라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 속에 나오는 호랑이 역시 前述한 호랑이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강원도 지역에서 전하는 전설로, 《三國志演義》에 나오는 關羽가 하루는 호랑이와 힘내기를 했는데 먼저 호랑이가 關雲長의 목을 힘껏 물었으나 關雲長은 끄덕도 없었고, 關雲長이 호랑이에게 힘을 과시할 순서가 되어 호랑이를 한 번 힘껏 때리자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⁸³⁾

이상 7편의 人物英雄傳說을 살펴본 결과, 호랑이의 이미지는 「郭再佑傳說」(2편중 1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을 잡아먹는 惡虎로 등장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함을 볼 수 있었고, 호랑이들이 사람으로 幻身하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둔갑을 할 때에는 중의 형상을 빌려 나오고, 적어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는 포악한 獸性を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결국에 가서는 주인공들의 英雄的인 智略과 勇力을 더욱 빛내주며 퇴치된다라는 점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바이다.

나) 虎患傳說

虎患譚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전설로 數量面에 있어서도 조사자료 424편 중 무려 90여편을 점유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量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지역과 주인공의 姓氏 등이 비교적 확실하게 제시되는 전설 뿐만 아니라 그저 옛날 옛적 어느 곳에 어떤 이가 살고 있었는데라는 말로 시작되는 민담의 형태를 지닌 것도 포함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兩者間 이야기 구조와 모티프에

83) 《口碑文學大系》江原(2), 609쪽.

서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전설의 형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⁸⁴⁾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민담의 형태로 전승된다해도 이는 전설에서 변이 파생된 민담으로 보고 모두를 전설로 간주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우리나라의 호랑이전설 중 虎患譚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까닭으로는 그만큼 호랑이의 숫자가 많아서 虎患 역시 많이 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虎患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비단 설화 뿐만 아니라 《三國史記》로부터 《朝鮮王朝實錄》에 이르기까지 실제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부지기수로 散見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文武王)13年(673) 여름 6월에 호랑이가 큰 宮闕의 뜰로 들어와 잡아 죽였다. 그 해 가을 7月 1일에 金庾信이 죽었다.⁸⁵⁾
- (溫祚王)13年(BC 6世紀) 봄 2월에 5마리의 호랑이가 城에 들어오자 王의 母親이 死亡했다.⁸⁶⁾
- (毅宗)元年(1147) 8월에 호랑이가 大明宮에 들어왔다. 이에 앞서서 호랑이가 選軍廳에 들어왔었다. 이날 밤 大明宮에 들어왔다. 이후 자주 城에 들어왔다.⁸⁷⁾
- (禡王)4年(1378) 8월에 호랑이가 京城에 들어왔다. 사람들을 많이 해쳤으므로 우리 太祖(李成桂)가 활로 쏘아 죽였다.⁸⁸⁾

84)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二友, 1975, 57쪽.

85) 金富軾,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下.

十三年 夏六月 虎入大宮庭 殺之 秋七月一日 庾信卒

86)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 第一, 溫祚王.

十三年 春二月 五虎入城 王母薨

87) 安鼎福, 《東史綱目》卷9 上.

八月虎入于大明宮 先是 虎入選軍廳 至是 夜入大明宮 數入城中

88) 《東史綱目》卷15 上.

- (世祖)10年 6월에 李允孫이 啓하기를, “忠淸道 連山縣에 惡虎가 있어서 사람을 해치고 있으니, 請하건대 사람을 보내주셔서 호랑이를 잡아 百姓들의 害를 없애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⁸⁹⁾
- (仁祖)4年 12월에 仁旺山 曲城 外廓에 호랑이가 있어 나뭇꾼을 잡아먹었다. (호랑이가)仁慶宮 後園의 담을 뛰어넘어 都監隊長과 摠戎隊長이 양 측의 軍兵들을 거느리고 호랑이의 발자국을 쫓아 잡았다.⁹⁰⁾
- (英祖)19年 2월에 平安道 江界의 20餘人이 호랑이에게 물려죽었다. 이에 恤典(災殃에 걸린 百姓들을 위해 벌이는 政府施策)을 施行토록 命했다.⁹¹⁾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王이 거쳐하는 궁궐에까지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해서 害惡을 끼쳤음을 알 수 있으니, 당시 일반 백성들이 겪었을 虎患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에 대해서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위의 《三國史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古代人들은 호랑이의 異常的인 행동이나 특이한 출현을 非吉象의 前兆나, 不吉의 암시, 상징 등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호랑이의 顯現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꼈었음⁹²⁾을 볼 때에도 우리 민족의

八月..... 虎入京城 多害人物 我太祖射殪之

89) 《朝鮮王朝實錄》, 世祖實錄

李允孫 啓 忠淸道連山縣 有惡虎傷人 請遣人捕之以濟民害 從之

90) 《朝鮮王朝實錄》, 仁祖實錄

仁旺山 曲城外 有虎攫食樵者 乃踰入仁慶宮後園 都監隊長摠戎隊長 率兩營軍兵 尋踪捕捉

91)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平安道江界民二十餘人 爲虎嚙死 命施恤典

92) 朴桂弘, 《韓國民俗研究》, 螢雪出版社, 1982, 76쪽.

호랑이에 대한 부정적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虎患譚은 일방적으로 사람이 虎患을 당하고는 끝을 맺는 이야기도 있으나, 대개의 내용은 주인공(여자까지 포함)이 勇戰奮鬪하여 아버지(혹은 남편이나 자식, 시부모)를 虎患의 위협에서 구해내거나 虎厄을 당한 아버지의 시신을 찾은 후, 호랑이에게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랑이복수담 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五倫行實圖》에 登載된 「婁伯捕虎」와 「金氏搏虎」를 들 수 있다.

“崔婁伯은 高麗 때 水原의 衙前 尙翁의 아들이다. 어느날 尙翁은 사냥을 나갔다가 범에게 물려 죽었다. 이때 婁伯의 나이는 15세였는데 山으로 올라가 그 범을 잡으려고 하자, 어머니가 말리므로 婁伯이 말하였다. “어머니! 어찌 아버지의 怨讐를 갚지 않고 이대로 건넌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즉시 도끼를 메고 범의 발자국을 따르니, 이때 범은 사람 하나를 다 먹은 뒤라 배가 불러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婁伯은 그 앞으로 뛰어들어 범을 꾸짖는다. “이놈! 네가 우리 아버지를 해쳤으니 나는 이제 네 고기를 씹어먹어야겠다.” 이 말에 범은 겨우 눈을 떴으나, 꼬리를 치면서 그대로 넓죽 배를 깔고 엎드렸다. 婁伯은 힘껏 도끼를 내리쳤다. 그리고 범을 깔고 앉아 그 배를 갈라서 아버지의 뼈와 살을 가지고 돌아와 깨끗한 그릇에 담았다. 또 범의 몸뚱이는 큰 항아리에 넣어 냇가에 묻어 두었다. 婁伯은 아버지를 洪法山 西쪽에 葬禮를 지내고는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의 일이다.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글 한 首를 읊었다. (中略) 읊기를 마치자 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擧喪을 마치고는 묻어 두었던 범의 고기를 꺼내어 모두 먹었다.”⁹³⁾

93) 《五倫行實圖》，李民樹 譯，乙酉文化社，1976，75쪽.

“金氏는 李朝때 安東 사람으로 散員 俞天桂에게로 시집을 갔다. 李朝 太宗 元年에 天桂는 國境을 지키러 나가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라 하니 吉日에 밖에 나가 자고 길을 떠나면 좋다고 하오. 나는 오늘 밖에 나가 자고 오겠소.” 아내 金氏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郎君을 따라 밖에 나가 자렵니다.” 이렇게 말하고 金氏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가지고 떠날 糧食과 옷가지를 꾸리고 있었다. 밤중에 갑자기 사람의 놀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에 있는 종들은 모두 목을 움츠렸으나 金氏는 몸을 일으켜 앞장서 나가니, 범은 이미 남편을 물고 달아나고 있었다. 金氏는 활을 쥐고 큰 소리로 외치더니 앞으로 달려가 왼손으로는 남편을 잡고 오른 손으로는 범을 마구 때리며, 거의 5·60步를 갔을 때, 범은 남편을 놓고 물러앉았다. 이때 金氏는 “너 이미 내 남편을 물어놓고서 또 나까지 물려고 하느냐.” 하고 꾸짖으니 범은 이내 가버렸다. 金氏는 기절한 남편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니, 날이 샅 무렵에야 남편은 겨우 깨어났다. 그러나 그날 밤, 범은 또 다시 그 집에 나타나 느닷없이 크게 울어댔다. 金氏는 몽둥이를 들고 門을 열고 나가 범을 꾸짖었다. “내가 알기로는 너는 짐승 중의 靈物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렇듯 심하게 구느냐.” 이에 범은 집 옆에 있는 배나무를 물어뜯고 가버렸다. 그 배나무는 이내 말라죽었다.”⁹⁴⁾

張德順이 그 소재가 너무 간단하고 無味乾燥하여 설화라고 하는 것부터가 주저되는 《三綱行實圖》식 저급설화⁹⁵⁾라고 한 위의 설화들은 중국의 「楊香傳說」로부터 영향을 授受받은 바가 크다고 보겠다. 《事文類聚》에 楊香의 傳說이 다음처럼 전해진다.

“楊香이 자기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릴 것 같자 화가 나서 호

94) 같은 책, 240쪽.

95)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94쪽.

랑이를 때린 후 아버지를 그 危害로움에서 구해냈다.”⁹⁶⁾

위의 「崔婁伯傳說」이나 「金氏婦人傳說」과 같은 유형은 口碑傳說 쪽으로 내려와서는 구조와 모티프의 큰 변화 없이 때와 장소와 인물만이 달라진 채 文獻說話集과 口碑傳說에서 자주 발견된다. 즉 「崔婁伯傳說」은 口碑傳說 쪽으로 흘러 들어 오면서 「金剛山 호랑이전설」 등으로 변이되어 나타나고,⁹⁷⁾ 「金氏婦人傳說」은 「호랑이에게서 남편 살린 烈女」⁹⁸⁾ 등으로 변이되어 전승된다. 위 전설의 특징으로는 思想的인 측면에서 볼 때, 孝, 烈과 같은 儒敎的 이념을 강조하고 고취시키는 설화로써 같은 孝와 烈의 문제를 다루었어도 後述할 加護譚 속에 나오는 긍정적 이미지의 호랑이와는 사뭇 正反對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의 전설은 전설 속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예기치 않던 사태에 부딪쳐 당황하거나 왜소해진다는⁹⁹⁾ 전설의 일반적인 틀을 깨고, 주인공이 勇戰奮鬪 끝에 결국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운명을 개척하는데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민담 속 주인공의 성격¹⁰⁰⁾과 더욱 근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崔婁伯, 金氏婦人 유형의 전설은 설화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非合理性에서 벗어나 合理性을 추구하는 인간의식의 변모와 함께 신화의 시대에서 전설의 시대로, 다시 민담의 시대로 발전해 왔다는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¹⁰¹⁾ 전설의 시대에서 민담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등장한 전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이들과 비슷한 유형의 전설로 호랑이에게 잡혀간 孫子를 할아버지가 호랑이 굴 속으로 쳐들어가 손자를 구해낸다는 전설이 여러 문헌설화집과 구비전설에서 보여진

96) 《事文類聚》，虎附 搏虎救父.

楊香其父爲虎噬 忿憤搏之父免害

97) 《口碑文學大系》慶北(3), 229쪽.

98) 《口碑文學大系》全南(5) 231쪽, 《記聞叢話》「湖中一死人」 등

99)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59쪽.

100) 張德順, 같은 책, 같은 쪽.

101) 林在海, 「說話의 存在樣式과 갈래體系」, 《口碑文學》 8호, 1985, 125쪽.

다.102)

다) 報恩傳說

호랑이報恩譚은 虎患譚 다음으로 많은 量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약 40여편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호랑이報恩譚 중 가장 수적으로도 우세할 뿐 아니라 널리 알려진 대표적 유형을 들라면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혹은 사람의 뼈)를 제거해주자 호랑이가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虎口拔釵譚을 들 수가 있다. 이 虎口拔釵譚은 佛教傳說인 「오늬塔傳說」이 그 최초로 보여지는데 「오늬塔傳說」이란 忠南 계룡산 연천봉에 있는 塔에 얽힌 전설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03)

“옛날 어느 절에 한 중이 佛供을 드리는데 호랑이 1마리가 나타나 고통스러운 몸짓을 했다. 중이 호랑이의 목구멍을 보니 비녀가 걸려 있었다. 중이 호랑이의 목에서 비녀를 꺼내주자 호랑이는 報答의 표시로 다음날 젊은 여자 하나를 물어온다. 중이 호랑이를 꾸짖자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고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린 여인에게 這間의 自初至終을 설명하고 집으로 되돌려주려 하였으나 처녀는 굳이 辭讓하고 자신도 佛道를 닦겠노라고 고집한다. 할 수 없이 중은 그 여인과 義男妹를 맺고는 佛道에 精進했는데, 이를 紀念하기 위해 塔을 세우고는 오늬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오늬塔傳說」과 같은 虎口拔釵型傳說에 나오는 호랑이는 언뜻 보아서 사람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영험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보아오기도 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그렇다

102) 《靑丘野談》 「入虎穴老翁抱孫」, 《口碑文學大系》全南(10) 332쪽.

103)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48, 97쪽.

라고 단정짓기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란 바로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이다. 즉 호랑이 목에 비녀가 걸렸다면 그 호랑이는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흉악한 호랑이였다는 말이 되며, 주인공은 죽어서라도 자기를 잡아먹은 호랑이의 목에 비녀를 꽂아 원수를 갚으려던 冤魂者에게는 결과적으로 큰 罪를 짓고 못된 호랑이에게만 좋은 일을 베푼 것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구발차형전설에 나오는 호랑이는 純然히 긍정적 이미지로서의 호랑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호구발차형전설은 엄격히 말하여 報恩譚이라고 하기 보다는 恩不恩譚¹⁰⁴⁾이라고 불러야 더욱 합당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오늬塔傳說」이 호구발차형전설의 최초라고 하는 까닭을 설명하면, 전설 속에 나타나는 시대를 볼 때 이 당시는 新羅 善德女王 때로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¹⁰⁵⁾ 이 「오늬塔傳說」의 내용과 酷似한 慶尙北道 영주군 풍기면에 所在한 喜方寺의 緣起傳說이 또한 同時代인 新羅 晉德女王 때의 전설이기 때문이다.¹⁰⁶⁾ 따라서 「오늬塔傳說」은 佛敎가 성행하던 三國時代에 생성된 初期 傳說이 아닐까 싶다. 끝으로 「오늬塔傳說」과 같은 호구발차형전설에 나타난 사상을 간략히 논한다면 이 전설은 佛敎的 報恩思想의 강조와 고취를 위해 생성된 전설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佛敎 倫理의 根本思想을 心理的으로 생각해 볼 때, 萬物은 서로 돕기 때문에 인간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으로 해서 자기라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항상 남의 혜택을 입고 있으며, 따라서 그 받은 은혜를 感知하고 그 은혜에 報謝하려고 하는 知恩報恩의 사상이 根本思想이기 때문이다.¹⁰⁷⁾ 더군다나 이러한 知恩報恩의 사상이 국가와 君王을 향하면 忠義가 되고, 부모를 향하면 孝行

104) 李樹鳳, 「忠北의 虎譚研究」, 《새터姜漢泳敎授回甲紀念論文集》, 418쪽.

105) 金文善, 「動物報恩說話研究」, 韓國敎員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16쪽.

106) 韓相壽, 《韓國호랑이說話集》, 67쪽.

그러나 喜方寺전설에서는 스님과 여인이 義男妹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부모가 감사의 표시로 喜方寺를 지어준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107) 金起東, 《國文學上의 佛敎思想研究》, 進明文化社, 1973, 14쪽.

이되고, 중생을 향하면 慈悲가 된다는 점¹⁰⁸⁾을 놓고 볼 때, 호구발차형전설은 아무리 사람을 해치는 흉악무도한 惡虎라고 할찌라도 가이 없는 부처님의 慈悲心으로 결국에 가서는 뉘우치고, 깨우치게 만든다는 내용을 통해서 報恩思想과 같은 核心的 佛敎倫理의 선양 뿐만 아니라 포교의 효과까지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호구발차형전설은 後代로 내려오면서 佛敎的 世界觀과 思想은 많이 탈색된 채, 儒敎的 孝思想과 陰宅風水思想에 褶合되어 시묘살이를 도와준다든가,¹⁰⁹⁾ 明堂을 점지해준다든지로¹¹⁰⁾ 변이되어 전승된다. 설화가 내용상의 小小한 변이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변이, 즉 佛敎에서 儒敎로의 변이도 가능한 까닭으로는 설화의 속성상 주체는 話者일 수밖에 없고 話者는 자신의 어떤 의도적인 試圖로 설화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다.¹¹¹⁾

또한 호구발차형전설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전설에서도 거의 차이점이 없게 등장하여 兩國 설화 간 影響의 授受관계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는데, 《太平廣記》卷14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郭文의 字는 文學이다. 洛陽사람인데 淸書에 전하기를 餘杭의 天柱山에 숨어 살았다고도 하고, 大璧岩에 居했다고도 한다. 太和 眞人이 屢次 그 집으로 내려와 沖眞之道를 주매, 世上으로부터 몸을 피해 깊은 곳에서 공부하니 世上일을 알지 못했다. 호랑이가 큰 입을 벌리고 石室 앞에 나아가 苦痛을 呼訴하니 文學가 손을 호랑이 목 가운데 깊숙히 넣어 뼈를 除去해주자, 다음날 호랑이는 사슴 한 마리를 물어와 石室 밖에다 두었다.”¹¹²⁾

108) 金起東, 같은 책, 15쪽.

109) 《口碑文學大系》全北(1), 295쪽.

110) 柳夢仁, 《於于野談》, 文化枝張之

111) 홍태한, 「說話變移의 發生要因과 方向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高鳳論集》 9호, 1991, 69쪽.

112) 《太平廣記》卷14, 郭文

兩國의 전설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나라의 전설은 前述한 바와 같이 佛敎的 성격이 강한 반면 중국의 전설은 道敎的 분위기가 농후하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호구발차형전설 이외의 호랑이 報恩譚을 살펴보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자, 호랑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후로 들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와,¹¹³⁾ 호랑이 새끼를 귀여워한 여자에게는 害를 안주고, 미워한 여자에게는 害를 준다는 내용¹¹⁴⁾이 간간히 보인다.

라) 加護傳說

加護傳說是 보은전설과는 달리 사람과 호랑이가 서로 은혜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도와주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은혜를 授受한다고 할지라도 보은전설과는 정반대로 호랑이로부터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은 후에 호랑이에게 보은하는 전설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호랑이 加護傳說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시묘살이하는 孝子에 感服한 호랑이가 도움을 주는 「吳浚傳說」과 炎夏의 계절에 紅柿를 구해 老母를 救病하는 「都氏孝子傳說」, 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식을 대신 호랑이에게 주는 孝婦傳說, 改嫁를 권하는 친정의 유혹을 뿌리치고 시댁으로 되돌아가는 「安孝婦傳說」 등이 있다.

① 吳浚傳說

郭文字文學 洛陽人也 晉書有傳 隱餘杭天柱山 惑居大壁岩 太和真人 贈降其室 授以沖眞之道 晦跡潛修 世所不知 有虎張口 至石室前 苦有訴告 文學以手深虎口中得骨 去之 明日虎啣一死鹿 置石室之外

113) 《口碑文學大系》全北(1), 251쪽.

114) 孫道心, 《호랑이》, 417쪽.

《溪西野談》, 《靑丘野談》, 《東野彙輯》, 《記聞叢話》 등에 吳浚의 傳說이 다음처럼 전해진다.

“吳浚은 成宗 때, 湖南 興德縣의 선비로 孝誠이 至極하였다. 親喪을 당하자 영취산 墓 곁에 오두막을 짓고 살며 울었다. 5리쯤 떨어진 산 속에 맑은 샘이 있어 매일 물을 길러 왔는데, 어느날 번개가 치더니 오두막 옆에 새 샘이 생겨나고 먼저 있던 샘이 말라 버리니 사람들이 그 새 샘을 孝感泉이라고 했다. 하루는 산 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오두막 밖에 앉아서 지내면서 보름마다 짐승을 물어왔다. 40에 죽었는데 焰魔王이 不孝子 대신 잘못 잡혀왔다 하여 되돌려 보냈다. 吳浚이 80에 죽으니 旌閭가 내려졌다.”¹¹⁵⁾

吳浚型 傳說은 加護傳說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傳說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口碑文學으로 들어와서는 호랑이로부터 시묘살이 도움을 받은 후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줌으로써 그 은혜에 報答하는 朝鮮 成宗 때, 松和郡에서 살았다는 夏慶의 傳說¹¹⁶⁾이 유명하다.

② 都氏孝子傳說

「都氏孝子傳說」은 《明心寶鑑》에 실려 전해지는 傳說이다.

“都氏は 집은 가난하나 孝道가 至極하였다. 숯을 팔아 고기를

115) 李源命, 《東野彙輯》, 孝子還所說冥府.

116)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344쪽.

이러한 傳說은 이 외에도 口碑文學大系 全南(1) 609쪽, 江原(1) 153쪽 등에 실려있다.

사서 어머니에게 반찬을 빠짐 없이 하였다. 하루는 市場에서 늦게 바삐 돌아오는데 솔개가 고기를 채갔다. 都氏가 슬피 울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솔개가 벌써 집안 뜰에 던져놓았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때아닌 紅柿를 찾는데 都氏가 감나무 숲에 가서 날이 저문 것도 모르고 감을 찾고 있을 때, 호랑이가 앞길을 가로 막으며 타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都氏가 타고 100리나 되는 산동네에 이르러 사람 사는 집을 찾아 잠을 請하는데 얼마 안되어 主人이 제사밥을 차려주는 중에 紅柿가 있어 都氏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자 主人이 이에 感服하고 감 20개를 싸주니 문 밖에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 등을 타고 새벽에 집에 당도했다.”¹¹⁷⁾

「都氏孝子傳說」역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설로써 慶尙道 地域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都氏라고 나오는데 반해, 他地域에서는 姓氏가 다르거나, 그냥 효자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 嶺南地域에서 생성된 전설임을 알 수가 있다. 118) 또 「都氏孝子傳說」은孝의 실천을 위해 구하고자 하는 물건이 제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효성에 감동한 초월적 존재가 도와 주어 결국 구하게 된다는 점과, 우리 나라의 전설 중에서도 紅柿 대신 竹筍이 등장하는 경우 119)가 꽤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孟宗傳說」로부터 영향授受의 가능성이 있는 전설로 보여진다. 孟宗의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左臺御史 孟宗이 孝心이 깊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竹筍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내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겨울철에 숲으로 들어가 슬피 우니 이내 竹筍이 돌아나 그것으로써 祭祀를 올렸다.”¹²⁰⁾

117) 《明心寶鑑新釋》，孝行篇，李民樹 譯，乙酉文化社，1972.

118) 都氏는 哲宗 때, 醴泉사람이라고 한다.

119) 《口碑文學大系》全北(2) 180쪽.

120) 《三國志》，吳志

左臺御史孟宗有孝道 母性耆筍 乃母亡 冬節宗入林哀泣 而筍生 得以供祭祀.

③ 忠州 安孝婦傳說

《東野彙輯》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실려 있다.

“安孝婦는 忠州의 門閥家 女人으로 17세에 丹陽의 崔氏에게 시집을 갔다. 얼마 후 남편이 죽으니 安氏가 몸소 살림을 하며 눈 먼 시아버지를 지극히 供養하였다. 安氏의 父母가 불쌍히 여겨 稱病하고 安氏를 불러 改嫁시키려 하니, 거짓 승락하고는 밤에 도주하였다. 安氏가 발이 부르터서 못 갈 지경에 호랑이가 나타나 安氏를 태우고 집에까지 왔다. 며칠 후 동네의 함정에 호랑이가 빠졌다 하기에 安氏가 가보니, 바로 그 호랑이이므로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풀어주었다. 시아버지가 죽어 葬禮를 치르려 하자 호랑이가 와서 墓 자리를 점지해주고 갔다. 그 후 養子를 얻었는데 子孫이 繁盛, 顯達하니 丹陽 崔氏가 暢大하였다.”¹²¹⁾

「安孝婦傳說」은 孝思想 뿐만 아니라 烈思想까지 포함시킨 전설로서 이와 비슷한 전설로는 端宗 때 인물인 趙旅(1420~1489)전설을 들 수 있다. 世祖에 의해 端宗이 寧越에서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咸安에서부터 한숨도 돌리지 않고 寧越 淸涼浦까지 올라온 趙旅가 강을 건널 배가 없어 난감해 할 때,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태우고는 강을 건너게 하여 무사히 殮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전설로 여기서는 또 忠思想과 연관되어서 전해짐을 알 수 있다.

④ 호랑이에게 자식 준 孝婦

121) 李源命, 《東野彙輯》, 《口碑文學大系》慶北(8) 779쪽, 全南(1) 170쪽 등.

「호랑이에게 자식 준 孝婦」는 가난한 집의 영감이 친구 生日의 초대를 받고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자 며느리가 아이를 업고 媿父를 찾아 나섰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媿父와 그 옆에 호랑이가 있는 광경을 보고 대신 아이를 호랑이에게 주고 媿父를 구해내자, 다음날 호랑이가 아이를 되돌려주었다는 내용¹²²⁾의 전설로서 역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상 호랑이 加護傳說을 살펴본 결과, 加護傳說은 100% 忠, 孝, 烈 등 儒敎的 윤리관을 토대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설들은 儒敎思想에서 孝誠을 강조하던 시대의 所産으로서의 美談들¹²³⁾로 보인다. 또한 이 중에서도 孝思想과 관련된 전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에 한민족의 孝 至上主義的 세계관도 아울러 엿볼 수 있다. 위의 加護傳說은 모든 호랑이설화 중에서 유일하게 異論의 여지가 없는 긍정적 이미지의 호랑이로 나온다.

마) 遁甲傳說

遁甲傳說은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虎化爲人傳說과 사람이 호랑이로 변하는 人化爲虎傳說로 구분할 수가 있다.

① 虎化爲人傳說

遁甲傳說은 거의가 다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신하는 虎化爲人傳說이다. 이때 변할 적에는 前述한 人物英雄傳說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늙은 중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는 儒敎的 이념이 팽배했던 시기에 나타난 崇儒抑佛的 사상에 의

122) 《口碑文學大系》全北(2), 570쪽, 이 외에도 京畿(9) 221쪽, 江原(6) 563쪽, 慶北(8) 786쪽 등에 실려있다.

123) 崔常壽, 《韓國民族傳說의 研究》, 成文閣, 1988, 92쪽.

거한 의도적 장치로 보인다. 遁甲의 모티프는 金庾信을 찾아온 老翁을 향해 金庾信이 변화부리기를 전같이 하라고 命하니, 老翁이 호랑이, 닭, 매 등으로 변하다가 결국엔 개가 되어서 집을 나갔다는 《殊異傳》의 「老翁化狗傳說」¹²⁴⁾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 전설 속에 나오는 老翁은 「獻花歌」를 지어 水路夫人에게 바친 牽牛老翁과 서로 相通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牽牛老翁과 老翁化狗 속의 老翁은 우리 민족이 神物の 모습을 표현할 때는 흔히 老人으로 표현하고, 설화 속에 나오는 老人이나 민속신앙에서 받드는 神의 모습은 대개 老人으로 표현된다는 견해¹²⁵⁾와 「獻花歌」는 記述物에 있어서 佛敎적인 요소보다는 呪歌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다는 견해¹²⁶⁾를 참고해볼 때, 일종의 巫俗神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新羅 통일기의 지배적 사상은 佛敎思想이었고¹²⁷⁾ 이 때는 이미 샤마니즘의 절대 信奉이 사라져버린 시대일 뿐만 아니라¹²⁸⁾ 오히려 고유의 巫俗은 당대의 배척(외래종교)을 만나 그 대열(종교적)에 끼지도 못하던¹²⁹⁾ 시대였던 만큼, 「老翁化狗傳說」이 생성됐던 시대는 崇佛賤巫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老翁化狗傳說」에서의 둔갑모티프는 巫俗神인 老翁을 짐승이 둔갑한 요망한 존재로 파악함으로써, 佛敎의 상대적 우월감을 극대화 시키려는 의도적 장치임이 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 佛敎가 儒敎에 의해 천시되고 억압당하는 崇儒抑佛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자, 의도적으로 증을 짐승의 변환체로 인식함으로써 儒敎의 佛敎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강조하고자했던 듯 싶다. 호랑이가 증으로 둔갑한다는 전설은 前述한 「姜邯贊傳說」이 시초인 듯 싶은데, 이는 설화 속에 나타난 시기를 헤아려보더라도 姜邯贊이 살던 무렵(948~1031)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설이 없기 때문이다.

124) 權文海, 《大東韻府群玉》所在 (崔南善全集(5)에서 참고 인용).

125) 崔喆, 《鄉歌의 文學的 解釋》, 연세大學校出版部, 1990, 193쪽.

126) 林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二友, 1981, 233쪽.

127)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6, 100쪽.

128) 金昌龍, 「海歌詞의 諸問題」, 《우리 옛문학론》, 새문사, 1991, 281쪽.

129) 李能和, 《朝鮮巫俗考》 第1章 (《우리 옛문학론》 284쪽에서 참고인용).

그렇다면 이에 대해 高麗는 佛教를 國敎로 삼은 나라인데 어떻게 佛教의 요체인 중을 멸시하는 내용의 전설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高麗가 비록 佛教를 國敎로 삼는 등 일단 佛教를 신봉하던 나라였기는 하지만, 이 때는 이미 新羅 때에만 하더라도 佛教와는 비교조차 안되던 儒敎가 장차 佛教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성장한 시대였고, 특히 儒敎는 귀족계급에 의해 폭넓은 지지를 받던 시대¹³⁰⁾였음을 詳考해 볼 때, 高麗時代에 이미 崇儒抑佛적 개념이 담긴 전설이 발생했으리라는 추측이 전혀 蓋然性 결여의 억측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虎化爲僧의 모티프가 崇儒抑佛의 발상의 의도적 장치임이 확실한 또 하나의 근거로는 前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의 전설이 朝鮮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朝鮮은 주지하다시피 崇儒抑佛을 건국이념의 하나로 내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虎化爲人傳說 속에 나오는 호랑이는 人物英雄傳說에서 본 바대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惡虎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자신의 눈썹을 주인공에게 떼어 주자, 호랑이의 눈썹을 주인공이 눈에 붙이고 보았을 때는 호랑이로 보였다가, 호랑이 눈썹을 떼고 보면 다시 중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범눈썹전설」¹³¹⁾에서는 암태지의 둔갑체인 惡妻 대신에 마음씨 고운 배필을 만나게끔 해준다는데서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전설로는 「崔婁伯傳說」의 변이 전승담인 「金剛山 호랑이說話」¹³²⁾에서 金剛山 호랑이가 중으로 둔갑하여 나타나고, 중으로 둔갑하지는 않으나 老婆를 잡아먹으려고 흰 범이 산에서 내려 왔다가 老婆가 제의한 시합에서 패한 다음에는 老婆의 아들이 되었고, 그 후로는 착하게 살았다는 「흰 범전설」¹³³⁾ 등이 있다.

130) 李基白, 《韓國史新論》, 157쪽.

131) 李家源, 《조선호랑이이야기》, 55쪽. 《口碑文學大系》慶北(2) 184쪽, 慶北(2) 304쪽 등.

132) 《口碑文學大系》忠北(2) 685쪽, 全南(5) 381쪽, 慶南(1) 193쪽 등.

② 人化爲虎傳說

人化爲虎傳說是 사람이 호랑이로 둔갑하는 내용의 전설이다. 아주 드문 유형의 전설로 대표적임과 동시에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전설로 「효자 黃八道傳說」이 있다. 「黃八道傳說」은 忠淸道 지역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黃八道라고 나오는 반면,¹³⁴⁾ 다른 지역에서는 李進士,¹³⁵⁾ 鄭生員¹³⁶⁾ 등 姓氏가 제각각 전승된다는 점을 볼 때, 원래 忠淸地域에서 생성된 전설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黃八道傳說」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黃氏 姓을 가진 효자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의 救病을 위해 밤낮으로 致誠을 드리던 어느날, 山神靈(혹은 늑은 중)이 내려와 어머니의 병은 개 100마리(혹은 1000마리)를 먹어야지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고는 호랑이로 遁甲할 수 있는 비법이 적힌 책을 건네준다. 황효자는 이후 날마다 호랑이로 변해서 개를 99마리까지 잡아 어머니에게 드렸으나,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호랑이로 변하는 남편을 두려워한 아내가 둔갑책을 불사르는 바람에, 어머니의 병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황효자는 화가 나서 아내를 물어 죽이고 八道를 떠돌아다니며(그래서 이름이 黃八道임) 사람을 해치다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었다.”¹³⁷⁾

일반적으로 효도를 주제로 한 설화는 행복한 결말을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黃八道傳說」만은 특이하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끝난

133) 韓相壽, 《韓國호랑이說話集》, 130쪽.

134) 《口碑文學大系》 忠南北 수집자료 10편 중 9편이 黃八道로 나옴.

135) 《口碑文學大系》 全北(2) 335쪽.

136) 成耆說님이 채록한 京畿地域 전설.(《韓國口碑傳承의 研究》, 一潮閣, 22쪽 참고)

137) 《口碑文學大系》 忠南北篇에 登載된 黃八道傳說 종합 요약.

다. 언뜻 볼 적에 「黃八道傳說」 속에 나오는 호랑이도 老母의 救病을 위해 一路邁進하는 가혹한 효심의 소유자이므로 보은전설 속의 호랑이처럼 일단은 긍정적 이미지의 호랑이로 볼 수가 있겠으나, 崔來沃은 이에 관하여 아무리 孝를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인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인간으로서 孝感萬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黃八道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애초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동물로 변신하여 道德의 굴레를 벗어나 거침없이 남의 개를 99마리나 잡아들이는 개도둑이 되었으므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孝란 처음부터 끝까지 至純至善하고 가장 인간다운 道德을 먼저 가져야 하는데 惡한 수단을 쓴 이 효자는 孝目的 자체를 부정한 꼴이 되므로 表裏不同의 二重人格者로 전락하여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다¹³⁸⁾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黃八道傳說」 속의 호랑이는 살아있는 호랑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기 보다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하고 있는 善과 惡의 본질 중 惡을 상징하고 있는 表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 이미지로서의 호랑이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의 호구발차담 속의 호랑이는 결과는 좋으나 그 동기에 있어서의 불순함이 문제가 된 반면, 「黃八道傳說」 속의 호랑이는 동기는 숭고하나 방법의 불순함과 결과의 비극성이 문제가 되어서 순연히 긍정적 이미지로서의 호랑이로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黃八道傳說」을 통해 또 한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 한민족이 孝觀念을 至上의 가치로 삼았던 민족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사고와 실행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人本主義的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던 민족이었음이라 하겠다.

중국의 호랑이관련 설화는 둔갑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¹³⁹⁾ 「黃八道傳說」은 그 중에서도 《宣室志》에 실려 전하는 「李徵傳說」과 많은 영향을 授受했

138) 崔來沃, 《韓國口碑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1, 218~219쪽.

139) 《太平廣記》의 申屠澄, 崔蹈, 天寶選人, 費忠傳說 등(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참고)과 《虎蒼》의 袁雙傳說 등(李家源, 《燕岩小說研究》 참고)이 있다.

으리라 생각된다.¹⁴⁰⁾ 원래 경기지역의 「黃八道傳説」은 앞에 예로 들은 충청지역의 「黃八道傳説」과는 달리 鄭生과 그의 친구인 秋生이란 인물이 나오고, 鄭生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효도에 실패한 후 호랑이의 모습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우연히 秋生을 만나 담배를 피우면서 저간의 기막혔던 사연을 이야기한 다음 사라졌다라는 부분이 덧붙여져서 전승된다. 중국의 「李徵傳説」역시 이와大同小異하니, 李徵이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갑자기 狂症이 나서 호랑이로 변한 후,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다가 친구인 袁參을 만나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말하고는 가족들의 생계를 부탁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두 전설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化虎 동기가 효의 실현임에 반해 중국의 化虎 동기는 효와는 별 무관한 것으로 보아 다시 한 번 뿌리 깊은 우리 민족의 孝 관념¹⁴¹⁾을 體感할 수 있다.

이 외의 人化爲虎傳説로는 蔚山の 守一禪師라는 중이 신통력이 있었는데 하루는 동네 아이들이 守一이 對坐冥想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자, 守一이 호랑이로 변하니 아이들이 놀라 호랑이를 달래자 다시 중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전설이 전해진다.¹⁴²⁾

(3) 民譚 속의 호랑이

民譚 속에 나타나는 호랑이의 양상은 어느 유형을 막론하고 거의 全篇에 걸쳐 우둔하고, 포악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영큼하고, 잔인하고, 비열함 등으로, 신화와 전설에 비해서 훨씬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차서 전승된다. 民譚에서의 유형분류는 張德順의 분류¹⁴³⁾를 골격으로 하여 일단 本格譚, 動物譚, 笑

140) 成耆說, 《韓國口碑傳承의 研究》, 30쪽.

141) 成耆說, 같은 책, 32쪽.

142) 《天倪錄》, 金剛路兵士夢感. (徐大錫 編, 앞의 책 참고 인용)

143)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72쪽.

譚 등 3분법을 취하기로 하겠으나, 個中에는 어느 유형에 넣어야 할지 자못 애매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필자 나름의 융통성으로 일단은 동물들만 등장하거나 사람이 부수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動物譚으로 하고, 本格譚은 동물이 부수적이거나 사람과 동물이 대등한 역할담당을 하는 기본적인 서사구조를 갖춘 민담의 경우를, 그리고 笑譚은 단편적 구조를 가진 사람과 동물이 등장하는 민담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本格譚 속의 호랑이

가) 虎食당할 八字

「虎食당할 八字」 민담은 총명하게 태어난 주인공이, 15, 6세 쯤에는 虎食을 당할 八字를 안고 세상에 나왔으나 주위의 도움과 주인공 스스로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 運命的 세계와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해 虎食을 면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新婦와 결혼도 하고 큰 성공까지 거둔다는 내용의 민담이다¹⁴⁴⁾. 이를 볼 때 「虎食당할 八字」 민담은 前述한 人物英雄傳說 속의 「栗谷傳說」이나 「朴曄傳說」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栗谷傳說」 등이 시대와 장소, 인물 등의 소개가 명확한 반면 「虎食당할 八字」 민담은 불명확하고, 내용구조에 있어서도 「栗谷傳說」 등이 전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비교적 단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虎食당할 八字」 민담은 민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 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연이어서 중첩되는 복합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栗谷傳說」과 「朴曄傳說」이 나도밤나무와 신통력의 소유자인 朴曄이라는 援助者의 도움이 문제

144) 韓相壽, 《韓國호랑이說話集》 214쪽, 《口碑文學大系》 忠南(6) 210쪽, 全南(4) 705쪽, 慶南(6) 342쪽 등.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虎食당할 八字」 민담은 援助者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인공의 세계를 향한 투쟁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실로 민담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自我와 世界와의 대결에서 自我가 世界の 우위에 있다는 사실¹⁴⁵⁾을 양 편이 모두 공유하고는 있지만 「虎食당할 八字」 민담이 세계를 향하여 더욱 치열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보다 進一步된 설화양식이라고 생각된다. 「虎食당할 八字」 민담에 나오는 호랑이는 주인공의 成人式을 위한 시련을 의미하는, 惡하고 무서운 이미지로 등장한다.

나) 男妹日月說話

「男妹日月說話」는 호랑이와 연관된 설화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전국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는 민담이다.¹⁴⁶⁾ 이 민담에 나오는 호랑이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먹이기 위해 마련한 얼마 되지도 않는 묵(혹은 떡)을 모두 빼앗아 먹은 후 어머니까지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더군다나 잡아먹는 과정에 있어서도 팔, 다리, 몸 등을 하나 하나씩 떼어먹는 잔혹함과 어머니로 위장하고 아이들을 피어내는 교활함, 그리고 아이들의 지혜에 속아 거듭 실패를 함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집요함까지 갖추고 있다. 「男妹日月說話」는 北方의 蒙古로부터 영향을 받은 민담으로 북방설화에서는 호랑이 대신 魔婆로 나온다. 이 설화는 일단 蒙古에서 생성된 뒤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파된 민담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몽고의 민담과는 달리 중국의 민담은 할머니가 들고 가는 경단을 늑대가 모조리 먹어치운 후 할머니를 잡아 먹고, 나무 위로 올라간 아이들마저

145) 趙東一, 《우리문학과 의 만남》, 弘盛社, 1985, 88쪽.

146)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155쪽. 《口碑文學大系》全北(1) 49쪽, 忠北(2) 408쪽, 慶北(4) 118쪽 등.

잡아먹으려다가 결국 우물에 빠져 죽는 등,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¹⁴⁷⁾ 또한 이 민담은 우리나라를 거쳐 다시 일본으로 전파된 후로는 호랑이 대신 山姥로 변이되어 전승된다.¹⁴⁸⁾ 이 설화 속의 호랑이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향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裏面의 表象¹⁴⁹⁾이라든가, 성년식의 후보자가 겪는 후보자의 克己苦痛의 체험,¹⁵⁰⁾ 불의의 강자에 대한 약자의 승리가 空想的,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¹⁵¹⁾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불의한 강자의 표상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대해서는 後述하고자 한다.

다) 쇠똥에 자빠진 범

「쇠똥에 자빠진 범」 역시 「男妹日月說話」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유명한 민담이다.¹⁵²⁾ 이 역시 북방으로부터 영향을 입은 민담으로 「男妹日月說話」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대 약자들의 상징인 할머니, 숯불, 고춧가루, 바늘, 쇠똥, 명석, 지게 등이 힘을 합하여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는 절대 강자의 상징인 흉악한 호랑이로 하여금 눈 속을 따갑게하고, 아프게 찢르고, 미끄러지게하고, 둘둘 말아 강물에다가 갖다 버리게 함으로써 퇴치한다.

2) 動物譚 속의 호랑이

147) 李周洪, 《中國民譚選》, 正音社, 1975, 75쪽.

148) 孫晉泰, 앞의 책, 133쪽, 158쪽.

149) 李符永, 「죽음과 救援의 象徴」, 《文學思想》, 5호, 354쪽.

150) 羅景洙, 「男妹日月說話의 研究」, 73쪽.

151) 柳增善, 《虎狼文學과 民俗》, 69쪽.

152) 孫晉泰, 앞의 책, 135쪽. 《口碑文學大系》京畿(8) 449쪽, 江原(3) 516쪽, 慶北(4) 308쪽 등.

動物譚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끼에게 속아넘어가는 호랑이민담이다. 이 유형은 여러가지의 내용으로 전해지는데 우선 嚴冬雪寒에 자기를 잡아 먹으려는 호랑이를 꾀어 냇가로 인도한 후 꼬리로 잉어를 낚게 하여 결국 호랑이 꼬리는 얼어 붙고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내용이 있고, 호랑이에게 참새를 많이 잡아먹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보리밭으로 인도한 뒤, 불을 질러 죽게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動物譚 중에서 무엇보다도 注目해야 할 이야기는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사람이 구해주자 호랑이는 되려 사람을 잡아 먹으려다가 토끼의 기지로 다시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민담이다.¹⁵³⁾ 이 민담 속에 나오는 호랑이는 보은전설 속에 나오는 호랑이가 은혜를 입은 후 보은을 하려 하는 것과는 영 딴 판으로, 보은을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려는 것으로 이미지의 변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이는 우리나라 사람의 호랑이에 대한 인식이 애초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설화 장르 중에서 신화와 전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설은 그 시대의 특수한 狀況, 思潮, 價値觀 그리고 등장인물 또는 事物의 특수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반면, 민담만은 비교적 이와 같은 시대의식의 영향을 덜 받고 있고, 따라서 순수한 原型象을 보존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¹⁵⁴⁾ 즉 전설은 佛敎가 興隆할 당시에는 知恩報恩이라는 불교 교리의 선양과 포교를 위해, 儒敎가 興隆할 당시에는 孝라는 지상명제의 실현과 확산을 위해 호랑이에 대한 민중들 원래의 原型이 공포와 두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층 인사들에 의해 호랑이를 善虎나 혹은 善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존재로 牽強附會 하였으리라 짐작되나, 민담에서는 이러한 外的 條件의 간섭없이 있는 그대로로서의 호랑이의 原型이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담 속에 나오는 호랑이와 토끼는 흔히 治者와 被治者의 대결이라든가 혹은 權力을 가진 자와 權力을

153) 《口碑文學大系》京畿(4) 723쪽.

154) 李符永, 「分析心理學과 民談」,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114쪽.

가지지 못한 자의 대결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다.155)

3) 笑譚 속의 호랑이

가) 범보다 무서운 꽃감

「범보다 무서운 꽃감」 민담은 일본에 영향을 미친 민담으로 일본에서는 꽃감 대신에 「古屋漏」라는 것으로 代置되어 전한다. 이 민담은 보통 꽃감이 뭔지 모르는 호랑이가 공포심이 발동해 도망갔다는 것으로 끝나는 유형보다는, 나중에 소도둑이 등장하여 소도둑은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호랑이는 소도둑을 꽃감으로 착각하여 소동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더욱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나오는 호랑이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역시 부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이다. 或者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호랑이의 순박하고 가식없는 친밀한 이미지의 강조라고도 하나, 어떻게 사람 잡아먹으러 산에서 내려왔다가 자신의 우둔함으로 인해 낭패에 빠지는 것이 순박, 친밀의 이미지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범보다 무서운 꽃감」 민담에 나오는 호랑이 역시 긍정적 이미지의 호랑이는 될 수 없으며, 이는 포악한 호랑이를 우둔하고 멍청하게 바꿈으로써 통쾌함을 倍加시킨 민담 향수층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민담은 일반적으로 호랑이가 먼저 등장해서 꽃감이란 말을 들은 후 소도둑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나, 간혹 소도둑이 먼저 나오고 호랑이가 후에 나오는 유형들도 있는데156) 이 때는 꽃감 대신 ‘곽쥐’라는 것으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곽쥐’란 壬辰倭亂 당시 의병으로 크게 무용을 떨친 郭越 8형제를 말한다는데157) 이와 같은 변이는 소도둑일 경우 꽃감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있겠기에 생긴 변이라고 보여진다.

155)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91쪽.

156) 《口碑文學大系》京畿(5) 253쪽.

157) 《새국어대사전》, 金星出版社, 1991.

나) 그 밖의 笑譚들

「범보다 무서운 곳감」 이 외의 소담들을 一瞥해보면, 호랑이가 잠을 잘 때 바보 호랑이의 코에다가 十字 모양의 금을 칼로 그어놓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자 가죽만 쏙 벗겨져서 큰 돈을 벌게 됐다는 호랑이 가죽 얻는 이야기,¹⁵⁸⁾ 개 몸둥이에다가 참기름을 칠한 후 호랑이가 삼키면 肛門으로 미끄러져 나오게 함으로써 호랑이 수십마리를 굴비 두름 엮듯 엮었다는 이야기,¹⁵⁹⁾ 女人의 下部를 본 호랑이가 입이 2개 달린 괴물이라 착각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이야기,¹⁶⁰⁾ 호랑이로부터 삼킴을 당한 후 그 배 속에 들어가 호랑이 肝을 술안주 삼아 먹고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¹⁶¹⁾ 어리석은 중이 소금장수한테 속아넘어가 호랑이 꼬리를 대신 붙잡고 1년 동안 꼼짝 못했다는 이야기,¹⁶²⁾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너무 서두르다 그만 나뭇가지에 목이 끼이는 바람에 도리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¹⁶³⁾ 등이 전하는데, 하나같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이들 이야기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로 보기 힘들다. 또한 이 중에서 호랑이한테 일방적으로 虎難을 입는다거나, 패배를 당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음을 봐도 우리 先祖들의 민담을 통한 건강한 해학정신과 강인한 민중의식을 體得할 수 있다.

2. 民謠 속에 나오는 호랑이

-
- 158) 《口碑文學大系》慶南(2) 508쪽 등.
 - 159) 《口碑文學大系》서울(1) 272쪽 등.
 - 160) 《口碑文學大系》江原(6) 190쪽 등.
 - 161) 《口碑文學大系》京畿(4) 327쪽 등.
 - 162) 《口碑文學大系》京畿(4) 802쪽 등.
 - 163) 韓相壽, 《韓國호랑이說話集》, 216쪽 등.

民謠는 노래로 된 口碑傳承이고,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이며, 대부분 민중이 생활상의 필요성에서 부르는 機能的인 노래이다.¹⁶⁴⁾ 그렇다면 이러한 민요의 속성을 놓고 볼 때, 서민생활을 표현하는데 있어 민요가 가장 유효했을 것¹⁶⁵⁾이고, 가장 진솔하고도 솔직하게 서민들의 의식과 염원을 묘사했으리라 본다. 민요는 그 불러지는 기능에 따라 크게 勞動謠, 儀式謠, 遊戱謠 등¹⁶⁶⁾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호랑이를 다룬 민요는 각각의 유형별로 1편씩 모두 3편이 전해진다.

(1) 儀式謠

이두두지 저두두지 구만두지 호만두지
 아홉골에 대사랑 수만부처 애기되여
 죽을손여 죽을손가 환가 약리부설 약진방. (麗州지역 민요)¹⁶⁷⁾

위의 노래는 일종의 呪術謠로서 호랑이를 쫓는 노래이다. 첫 귀절의 ‘이두두지 저두두지’ 라는 말은 일종의 주문으로 생각된다.

(2) 遊戱謠

요 뒷산 늪으신 호랭이

164)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 75~76쪽.

165) 任東權, 「韓國口碑文學史 下」, 《韓國文化史大系(10)》,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7, 742쪽.

166)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 82쪽.

167) 《口碑文學大系》京畿, 387쪽.

살편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빨은 없어 먹지도 못하고
 올렸다 흘쳐 내렸다 흘쳐
 흘칠 흘칠 침만 바른다. (惠山鎭 지방 민요)¹⁶⁸⁾

위의 민요는 童謠로서 일종의 풍자요, 유희요 혹은 饑謠의 범주에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李朝時代는 500년을 통해서 불안요소가 조성될 때마다 동요의 膾炙를 통해 예언을 하고 先兆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¹⁶⁹⁾ 이 노래는 늙고 무능력해져서 개 한마리 어찌지도 못하고 동네 아이들로부터 嘲弄을 당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부패하고 무능했던 관리들을 은유적으로나마 풍자하고자한 민요가 아닐까 싶다. 민요에서 관료들의 虐政 내지는 비행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모습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불리워지는 동요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이들이 무어라고 하든지 그 사실이 대단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엄청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꾸며서 재미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⁷⁰⁾

(3) 勞動謠

범같으나 시아버님
 여우같으나 시어머님
 구박에 지친 며느리가
 시집살이 한탄한다
 시집 온 지 사흘만에

168) 任東權, 《韓國民謠集(1)》, 集文堂, 1961, 337쪽.

169) 任東權, 《韓國文化史大系(10)》, 732쪽.

170) 趙東一, 《韓國說話와 民衆意識》, 正音社, 1985, 313쪽.

부엌이라 내려가서
 가마 뚜껑 열어보니
 엉거미가 줄을 치고
 날거미가 줄을 쳤네
 범이 그리 세다한들
 시아비보다 더 세더냐
 꼬추장이 맵다한들
 시어미보다 더 맵더냐. (安東지방 민요)¹⁷¹⁾

위의 노래는 시집살이요로서 엄연히 말하면 勞動謠라기 보다는 歎謠로 구분해야겠으나, 媼母로부터 구박을 맞고 설움에 빠진 며느리들이 家內勞動을 하면서 불렀음직하기에 노동요로 구분짓기로 한다. 이 민요는 매서웁고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부모를 각각 호랑이와 여우에 대비시키고 있다.

이상 3편의 민요 속에 나타난 호랑이를 본 결과 실생활적 기능을 최우선의 본질로 여기는 민요에서도 역시 호랑이는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俗談 속에 나오는 호랑이

소위 言語共同社會란 태초에 말이 있고서부터 시작하였으니 민족사회와 언어공동사회는 동시에 출발했던 것이며, 그러기에 언어 속에는 민족 전성원이 일치하는 체험과 물질적 내용과 정신적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⁷²⁾ 그렇다면 이를 놓고 볼 때,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

171) 任東權, 《韓國民謠集(2)》, 1974, 338쪽.

172) 金善豐,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韓國民俗學》 5호, 1972, 6쪽.

어 구성되고 口傳되어온 俗談이야말로 어느 한 대상의 원형 파악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잣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속담이란 간략한 문장 속에 寸鐵殺人的인 心象의 정곡을 찌르는 口碑장르로 우리의 發想法과 사고의 심층심리를 속담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¹⁷³⁾ 그 안에 민중의 생활 철학과 시대상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⁴⁾ 그런데 호랑이는 우리 속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教導型 속담 등에는 두드러지게 미미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필자가 나름대로 자료를 통해 호랑이관련 속담을 算出해낸 결과 약 80편(‘범’을 ‘호랑이’로 쓰거나, 별다른 뜻의 차이가 없는 것의 중복은 제외)의 호랑이속담 중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큰인물, 자애심, 용기 등을 나타낸 속담은 9편에 불과하고, 호랑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등과 같이 긍정적이랄 수도, 그렇다고 부정적이랄 수도 없는 속담이 약 19편 정도를 차지하며,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 경계, 비난, 혐오, 공포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속담으로 드러났다.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⁷⁵⁾

(1)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속담

- 까마귀 운다고 범 죽으랴. (큰인물)
- 개 호랑이가 물어간 것 만큼 시원하다. (문제의 해결)
- 훗질하는 놈 창자는 호랑이도 먹지 않는다. (선악구별)
- 자식둔 골에는 호랑이도 돌아본다. (父母의 자애)

173) 韓國民俗學會 編, 《韓國俗談集》, 瑞文堂, 1972, 4쪽.

174)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 189쪽.

175) 자료로는 《韓國俗談集》 瑞文堂, 《호랑이》 서울신문사(孫道心 著), 《한국호랑이》 悅話堂(김호근·윤열수 著) 등에 실린 속담들을 추출했다.

- 범같은 장수. (용맹)

(2) 부정적 이미지의 호랑이속담

- 白虎자리 넓다. (거만함)
-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위험)
-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경계)
- 호랑이 개 어르듯 한다. (엉큼)
- 앞 南山 호랑이 뭘 먹고 사나. (패행)
- 개미 드는 곳에 범 든다. (문제의 심화)
- 귀신 피하니 호랑이 달려든다. (재앙의 연속)
- 길 무섭다하면 호랑이가 나온다. (공포)
- 미친놈이 호랑이 잡는 법이다. (우둔함을 핀잔)
- 배고픈 호랑이 원님 알아보라. (포악)
- 범 무서워 산에 못가랴. (공포)
- 범에게 개를 쫓주랴. (신뢰없음)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위험)
- 왕년에 호랑이 안잡은 놈 있나. (허풍)
- 선불맞은 호랑이. (난폭)
- 자는 호랑이 불침농기. (공연한 문제 야기)
- 숲이 깊으면 호랑이 나온다. (경계)
- 산 호랑이 눈썹 빼오기. (불가능)

이상 속담을 통해 접근해 본 호랑이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호랑이가 속담 속에 많이 등장하

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됴됨이 형성에는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인간을 가르치는 쪽의 바람직한 동물로도 여기지 않은 민족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보겠다.¹⁷⁶⁾

4. 巫俗에 나오는 호랑이

巫俗에서의 호랑이는 보통 山神靈이나 辟邪進慶의 동물로 등장한다고 한다.¹⁷⁷⁾ 이 때 辟邪進慶의 경우라면 혹 몰라도 호랑이가 일반적으로 산신령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으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寺刹이라든가 山神閣에 모셔져있는 巫神圖와 설화 등을 통해 볼 때, 산신령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정작 호랑이는 산신령을 보좌하고 호위하는 使者, 즉 심부름꾼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¹⁷⁸⁾ 그러나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모신다는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도 아닌만큼¹⁷⁹⁾ 일단은 산신령이라는 차원에서 호랑이를 놓고 보도록 한다.

(1) 山神靈으로서의 호랑이

巫俗에서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모신다는 假定을 일단 수긍하고 호랑이의

176) 김병웅, 「動物俗談의 心理的 考察」, 《靑荷成博士耆兆回甲紀念論叢》, 92쪽.

177) 《韓國의 상징문화사전》, 東亞出版社, 338쪽.

178) 《한국호랑이》, 30~37쪽에 있는 山神圖 참고.

任哲宰는 같은 책 14쪽에서 山神의 원형이 원래는 호랑이였었는데 후에 인격적 내지는 신격적으로 변용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證左와 변천과정의 설명부족에 따른 억측이라고 한 뒤, 산신을 위해 호랑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산신의 使者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으므로, 호랑이는 산신의 侍者나 혹은 호위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9) 《口碑文學大系》江原(3) 505쪽. 江原道 원덕군 길남리에 있는 城隍으로 국내 유일의 白虎를 모시는 城隍이다.

原型을 논한다 할찌라도 역시 호랑이는 부정적 이미지이다. 보통 산신령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인간에게 도움을 베푸는 숭앙의 대상물만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일정기간 안에 祭物을 봉납하지 않으면 다음날 당장에 虎難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렇다.¹⁸⁰⁾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비록 무속에서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모신다고 할찌라도, 이는 힘 없고 불쌍한 부락민들로서는 포악한 산신령 밑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종과 강요의 삶을 사는 것 뿐이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적인 대상으로서의 산신령으로 받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이미지의 호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산신령으로서의 호랑이는 畏敬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한낱 畏服의 대상일 뿐인 고로 긍정적 이미지의 호랑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또한 《山海經》에서 이른 바, 호랑이는 ‘瘤鬼’라고 칭했는데 神은 善靈을 뜻하고 鬼는 惡靈을 뜻하는 고로 옛날부터 호랑이는 善神의 관념보다는 惡神의 관념으로 인식된 동물임을 알 수 있다.¹⁸¹⁾

(2) 辟邪進慶으로서의 호랑이

호랑이는 병귀나 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믿어서 宮中에서는 端午節에 호랑이 그림이나 ‘虎’자가 적힌 부적, 쪽으로 만든 호랑이 등을 나누어 주었고, 말라리아에는 호랑이고기를 삶아 먹거나 호랑이그림을 환자의 등에 붙였으며, 콜레라는 호랑이그림을 입구에 붙여 막고, 감기에는 “호랑이 왔다.”는 소리를 3번 외쳐 도망가게 하였다.¹⁸²⁾ 또한 부스럼의 경우에는 부스럼 부위에 ‘狗’자를 쓰고 그 둘레를 9개의 ‘虎’자로 막아 병막이를 했다.¹⁸³⁾ 이처럼 호랑

180) 孫道心, 《호랑이》, 564쪽.

181) 朴桂弘, 《韓國民俗研究》, 蜃雪出版社, 1982, 73쪽.

182) 《韓國의 상징문화사전》, 339쪽.

183) 孫道心, 앞의 책, 613쪽.

이 글자나 부적으로 병귀가 쫓겨 간다는 俗信에서 호랑이를 聖스럽고 영험한 동물로만 인식하려는 것도 역시 따져볼 일이니, 이는 무서운 것으로써 무서운 것을 驅逐한다는 일종의 類似呪術¹⁸⁴⁾의 사고방식의 소산으로 파악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예시하는 우리의 전래 민속풍습은 이와 같은 논리를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하리라 생각된다.

“最近世의 民間醫術에 日帝 治下의 각종 官廳의 印章으로 治病을 祈禱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다 못해 우표에 찍힌 消印조차도 官印이라고 해서, 그 官의 힘이면 救病할 수 있다고 믿었다. 官印을 불에 살라서 그 잿가루를 물에 타서 마신 것이다. 이것은 官의 힘, 즉 官의 璽포가 얼마나 컸기에 民間人이 官을 무엇인지 무서운 것으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¹⁸⁵⁾

日帝時代 때 官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었을 리가 만무하다. 부정적이고 공포의 이미지이지만 그 공포로써 다른 공포를 물리친다는 의미이니 벽사진경의 작용만으로 호랑이를 좋은 이미지의 동물로 규정짓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범곳에서의 호랑이

184) J. G. Frazer, *The Golden Bough*, 《黃金가지》, 張秉吉 譯, 三省出版社, 1977, 46쪽.

프레이저는 共感呪術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類似는 類似를 낳는다는 類似法則과 한 번 서로 接觸한 것은 실제로 그 접촉이 떨어진 후에도 여전히 서로 계속 작용한다는 接觸法則으로 兩分한 뒤, 이 원리 중에서 유사법칙에 의해서 주술사는 단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그가 바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185) 金烈圭, 「民間傳承과 韓國的인 것」, 《韓國思想의 源泉》, 博英社, 1976, 45쪽.

慶尙北道 迎日郡 九龍浦邑 강사리에서는 범굿(혹은 호탈굿)이라는 굿을 여는데, 이는 산신령인 호랑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굿을 여는 것이 아니라, 虎患당한 사람의 혼령을 위로해주고 마을에 虎患이 없기를 기원하는 굿이다. 이 굿의 진행순서는 깊은 밤, 司祭를 맡은 男巫가 굿을 벌이면 호랑이가 굿당 밖에서부터 나타나 굿당 주변을 기어다니다가 그 안으로 머리를 내밀고 다시 숨는 것을 반복한 후, 범이 옆에 묶어 놓은 닭을 물고 가려는 순간, 砲手가 총을 쏘아 범을 잡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¹⁸⁶⁾ 강사리 범굿의 양식을 통해서 볼 적에도 우리 민족의 호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186) 河孝吉, 《강사리 범굿》, 悅話堂, 1989, 86쪽.

Ⅲ. 호랑이의 原型과 韓國人의 思想考察

이상 설화를 중심으로 口碑文學 제반에 걸쳐서 호랑이의 原型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본 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호랑이설화 속에 투영된 한국인의 思想考察과 아울러서 호랑이의 原型이 왜 부정적으로 나타났는지와 호랑이를 산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호랑이 이미지의 시대적 변천상 등에 대해서 論究해 보고자 한다.

1. 호랑이說話 속에 나타난 人本思想

原型(Archetype)이란 인간이면 누구의 정신에나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核으로서 時間과 空間의 차이, 地理的 조건의 차이, 人種의 차이를 넘어선, 太古적부터 現代에 이르는 긴 時間에 수없이 반복되었으며 또는 반복되어 갈 인류의 근원적인 行動類型을 가능케 하는 先驗的 조건이요, 太初로부터의 체험의 집전이라고 할 수 있다.¹⁸⁷⁾ 그렇다면 原型이란 태초로부터의 선형적 조건이라는 위의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펼 때, 즉 까마득한 옛날 赤手空拳의 인간이 산이나 혹은 밀림에서 호랑이와 맞닥뜨렸을 때에 우선적으로 느꼈을 감정인 두려움과 공포, 적개심을 想起할 때 호랑이의 原型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그러한 호랑이의 모습을 통해서 용맹심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배우고자 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일면 수궁이 전혀 가지 않는 말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

187) 李符永, 《分析心理學》, 85쪽.

고는 이미 인간의 이성적 작용이 주입된 후에 생길 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에 앞서의 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선형적인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애초에 우리 민족이 품었던 호랑이에 대한 감정은 惡感情일 수 밖에 없었으리라고 봄이 합당하며, 이는 한반도 내에서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셨다든지 등의 기록과 흔적을 실제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들 《後漢書》 「濊志」와 《三國志》 「魏志東夷傳」 '濊'에 나오는 기록인,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데 이 때가 되면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논다. 이것을 舞天이라고 한다. 또 그들은 범을 神으로 여기고 제사를 올린다.”¹⁸⁸⁾ 라는 기록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마치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숭배한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後漢書》나 《三國志》 등에서도 '濊'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다룬 기록에서도 호랑이를 神으로 모셨다는 기록을 더이상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볼 때에도 虎神崇拜思想은 한민족의 보편적인 관념이라는 견해는 마땅히 再考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더군다나 '濊' 지역은 “南쪽은 辰韓과 連接되었고, 北쪽은 高句麗, 沃沮와 隣해 있다. 그리고 東쪽은 큰 바다에 닿아 있다. 지금의 朝鮮 東쪽은 모두 그 濊 땅이다. 湖水는 2萬이나 된다.”¹⁸⁹⁾ 라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의 江原道 지역을 중심으로 咸鏡道와 慶尙道 지역의 일부를 지칭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 江原道에서 마저도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시는 경우는 前述한 바대로 단 한 곳에서만이 미미하게 자취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190) 그리고 또 한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는 위와 같이 호랑이를 神으로 모셨다는 기록이 중국의 史書에서만 볼 수 있고 정작 우리 나라에서는 古

188) 李民樹 編譯, 《朝鮮傳》, 探究堂, 1995, 99쪽.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三國志》魏志 東夷傳 濊.

189) 李民樹 編譯, 같은 책, 97쪽.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 皆其地也

190) 앞의 註 174) 참고.

代와 관련된 어느 서적을 살펴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을 숭앙했다는 것은 다분히 토템이즘적 신앙관의 표현이었을 터인데, 前述한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 古代에 토템이즘적 신앙의 흔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존재 규명 여부조차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학설들을 일단 접어두고 토템이즘적 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다 할찌라도, 古代의 한반도 전역에서 곰(熊)을 숭상하였으리라는 근거는 찾을 수 있었어도,¹⁹¹⁾ 호랑이를 崇尙하였으리라 짐작할 만한 根據는 쉽사리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중국 뿐만이 아니고 중국 주변에 있는 東夷系統의 기록이 적지아니 수록되어 있는 중국 古代의 신화, 역사, 지리, 민속서인 《山海經》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있다.

“君子國이 그 北쪽에 있다. (그 사람들은) 衣冠을 갖추고 칼을 차고 있으며, 짐승을 잡아 먹는다. 두 마리의 무늬 호랑이를 부려 곁에 두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辭讓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다.”

192)

君子國의 위치가 海外의 東南쪽 귀퉁이에서 東北쪽 귀퉁이까지 이르는 지역이라고 明記된 것으로 볼 때, 군자국이란 우리나라를 지칭하고 있음에 의

191)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77, 8~9쪽.

“곰’은 ‘김, 검, 곶, 금’ 등으로 互轉되는 ‘神’의 古語로 檀君의 熊女誕生說은 ‘곰, 곶’의 유음에서 생긴 傳說이다.”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探究堂, 1972, 69쪽.

“우리 建國神話에 나오는 모든 神聖動物 중에서 오래되고 原形的인 것은 곶(熊)이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建國神話일 뿐만 아니라, 모든 神의 통칭인 곶(신-검)이란 말이 이 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192) 《山海經》海外東經, (鄭在書 譯), 民音社, 1985, 244쪽.

君子國在其北 衣冠帶劍 食獸 使以大虎在傍 其人好讓不爭

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山海經》에서는 《後漢書》나 《三國志》와는 달리 호랑이를 섬기는 被治者적인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호랑이를 부리는 治者의 입장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張良이 東遊를 하던 秦始皇帝를 暗殺하기 위하여 東쪽 滄海郡의 力士로 하여금 쇠방망이를 던지게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로 유명한 滄海力士 黎勇士에 관한 전설이 《旬五志》에 전하는데, 이 전설을 통해서 보면 한반도의 虎神崇拜思想에 대한 의혹이 한 층 더 짙어진다고 하겠으니 이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濊國**의 한 시골 老嫗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박만한 알이 떠내려 왔다. 老嫗가 이를 이상히 여겨 자기집으로 갖다 두었더니 얼마 후 알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남자 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나이 6, 7세가 되자 身長이 8尺이나 되었고 얼굴빛은 검게 되어 黎를 姓氏로 삼아 黎勇士라고 불렀다. 이 때 **濊國**에서는 사나운 호랑이가 있어서 밤낮으로 사람을 수없이 해치니 온 나라가 이를 걱정만 할 뿐, 이를 除去할 方道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黎勇士가 나타나 惡한 저 짐승을 반드시 잡아 나라안의 근심을 덜어 주겠다고 말한 후, 때마침 이를 박박 갈며 산기슭을 내려오는 짐채같은 호랑이 한 마리를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려 호랑이 등에 올라 타더니 한주먹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박살내서 죽여버렸다.”¹⁹³⁾

이 전설 속에 나오는 滄海力士의 나라인 濊國은 호랑이를 神으로 모시는 나라이고 시대적으로 볼 때에도 秦나라가 春秋戰國時代를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뒤와 同時代였을 것인 만큼, 《後漢書》나 《三國志》에 기록되어질 당시의 濊國보다 약 400여년 앞선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시토텐이즘적 虎神崇拜思想이 진짜로 있었다면, 《後漢書》에 기록되어질 당시보다 더욱 강한 모습으로 존재했어야 됴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해치는 증오의 대상,

193) 洪萬宗, 《旬五志》(李民樹 譯), 乙酉文化社, 1971, 78쪽.

제거해야 할 社會惡으로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음에 자못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다. 따라서 《後漢書》나 《三國志》에 나타난 기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는 기록자의 착오이거나 상상의 기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¹⁹⁴⁾은 且置하고라도, 인간이 동물(특히 호랑이)을 神 혹은 祖上으로 삼았거나 同等한 생명체로 여겼다고 막연히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동물을 인간과 공존은 하나 대립되는 존재로, 인간생활을 위해서는 必須不可缺한 존재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해야 마땅하리라고 보고, 이를 다시 말하면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동물을 인간의 우위에 놓은 것이 아니고, 그와 대립하는 동물들로부터 인간이 소유하지 못한 神性(神聖이 아님)을 취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해 보려는 우위관념의 표현¹⁹⁵⁾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인간이 호랑이를 설령 神으로 봉양했다 하더라도 이는 호랑이를 진정으로 崇尚했기 때문에서라기 보다는 祀虎의 俗이 避禍에서 나왔다고 생각함도 無謂치 아니하다거나,¹⁹⁶⁾ 호랑이가 많이 나다니며 사람을 해쳐 虎患을 막아달라고 기원하는 절을 세우고 그러한 이야기를 지었을 것이라는 해석,¹⁹⁷⁾ 혹은 위험의 동물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 동물과 宥和하려고 하였던 未開社會인들의 사고¹⁹⁸⁾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곧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민족의 人本主義적 사고의 逆說的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의 始終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사상은 人本主義思想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선 우리 나라의 開國神話인 檀君神話를 보더라도 이러한 人本主義思想의 흔적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 檀君神話 속에 나오는 신령한 존재로 추측되는 동물인 곰과 호랑이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100일 동안 日光도 보지

194) 任哲宰, 「호랑이에 대한 韓國人の 생각」, 《한국호랑이》, 14쪽.

195) 李玉, 「古代 韓國人の 動物觀과 그 描寫」, 《東方學志》 46~48, 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27~31쪽 발췌 요약, 1985.

196)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4)》, 179쪽.

197) 趙東一, 《한국문학통사(1)》, 知識産業社, 1989, 200쪽.

198) 朴桂弘, 《韓國民俗研究》, 74쪽.

못하고 오로지 마늘과 쑥으로만 버텨내야 하는 고통을 堪耐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에도 곰과 호랑이가 아무리 신령한 존재로서의 동물이라 할찌라도 역시 인간의 몸을 하고 있을 때라야만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참가치적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虎景神話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자신을 山神이라고 밝힌 호랑이가 虎景을 위협으로부터 구해낸 뒤, 그날밤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 虎景과 부부의 緣을 맺고 싶고, 맺은 후에는 虎景과 함께 神政을 다스리고자 하니 虎景을 山の 大王으로 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청함으로써, 스스로를 인간보다 못한 下格의 존재로 자처하고 있다. 전설 쪽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이러한 人本主義的 인식은 더욱 발전적으로 심화,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虎化爲人傳說에서의 호랑이들은 인간이 되고 싶은 간절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호랑이들이라는 점에서 前述한 檀君神話 속의 호랑이와 虎景神話 속 호랑이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들 호랑이들과는 달리 虎化爲人傳說 속의 호랑이들은 전혀 神格示된 호랑들이 아닐 뿐더러, 神話 속의 호랑이들이 결국은 호랑이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변신하지 못하고 마는 것과는 달리 일시적으로나마 완전한 인간의 육신과 사상, 감정 등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훨씬 인간화 된 호랑이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바로 人本思想의 심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金現感虎傳說」 속의 호랑이처녀는 오히려 同類인 호랑이 그대로의 포악한 獸性을 가진 3형제 오빠 호랑이를 향해 난폭함을 꾸짖는 등, 단순히 인간이 되고 싶어서라든지, 혹은 인간을 잡아 먹고 싶어서 일시적인 眩惑의 수단으로써 인간으로 둔갑하려 하는 다른 虎化爲人傳說들과는 달리 완벽하고도 善良한 인간으로 化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염원의 욕구가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데에서도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이 「金現感虎傳說」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한 호랑이처녀와 어머니는 희생적이며 심성이 고운 모습이고, 호랑이 그대로의 모습인 오빠 호랑이들은 포악한 모습

을 보이고 있는 부분, 즉 인간의 모습일 때는 착하고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한 뒤에는 흉포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경우는 兩者間の 극명한 대조를 통해 인간이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값어치있고 우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며, 이러한 양상은 전설 뿐만 아니라 민담에 이르러서까지도 공통된 현상이라 하는 것은 前項에서 詳論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인간으로 化하고자 하는 호랑이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고, 그러한 호랑이들을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도 역시 人本思想적인 측면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모습을 빌리고 있는 호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대하는 경우라면 혹 몰라도 단지 인간으로 둔갑한 호랑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는 긴장을 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심지어는 申屠澄이나 崔蹈의 傳說에서처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다가 비로소 호랑이의 모습으로 정체를 드러낸 후에야 놀란다거나, 공포에 떠다든가, 도망을 간다든가 하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인간의 변신체라 할찌라도 적어도 萬物の 靈長이요,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을쥔댄, 감히 흉악무도한 짓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고도 무의식적인 신뢰가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음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虎化爲人傳說 속에 나오는 호랑이들은 擧皆가 자신들이 원하던 바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마는 공통점을 보인다. 「金現感虎傳說」 속의 호랑이처녀는 金現과의 하룻밤만의 짧은 雲雨의 情을 나누고는 결국 흉악한 오빠 호랑이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채 비극적 최후를 맞는데 이처럼 호랑이처녀가 至高至純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비참한 까닭으로는 인간화된 호랑이는 아무리 善業을 행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 해도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며, 이는 다시 말하면 동물로서 동물의 영역에서만 살아야 할 호랑이가 인간화 하여 인간과 더불어 대등적인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이것만은 인정할 수 없는 뜻이 되겠고, 사람과 동물이 交婚하여 일생을 지낸다는 것은 그 近因이야

어디 있든 간에 인간의 가치를 동물적인 것으로 卑下시키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⁹⁹⁾ 따라서 이를 놓고 볼 때 「金現感虎傳說」은 강력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형성된 설화임이 立證된다 할 수 있고 호랑이처녀와도 같은 숭고한 善心の 호랑이도 인간세계의 질서를 혼으릴때는 용납이 안되는데, 姜邯贊, 徐花潭, 朴曄, 金應瑞, 李栗谷傳說 등에 나오는 호랑이들은 사람을 잡아 먹고 대신 자기가 사람이 되려하는 極惡한 흉계를 품고 나타나고 있으니, 자신들이 뜻하던 바대로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퇴치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人本主義的 사상은 人化爲虎傳說인 「黃八道傳說」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되니 黃八道 역시 그 동기의 숭고함과 가혹하고도 눈물나는 孝心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계와 동물계의 경계선을 넘나들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로서 한 차원 높은 존재인 인간으로의 변신도 아닌 萬物の 靈長인 인간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호랑이로 변한 후 개도독질로 老母의 병을 구하려 함으로써 결국 비극적 최후를 당하게 됐다는 것은 孝를 至上 최대의 德目으로 꼽아온 한민족조차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孝를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孝의 위대성을 짓밟는 부도덕한 패륜으로 간주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孝를 주제로 한 또 다른 전설인 「崔婁伯傳說」을 보더라도 강력한 人本主義思想의 일면을 볼 수 있으니 前述한 바와 같이 孝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호랑이들은 100% 善虎의 이미지라고 論證한 바 있거니와 이는 어디까지나 호랑이가 인간에게 害를 끼치지 않고 도움만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만약 인간에게 약간의 害惡이라도 끼치는 경우 그 호랑이가 산신령적인 존재이건, 악귀와 같은 존재이건, 아니면 단순한 맹수만으로서의 존재이건간에 반드시 인간들의 安寧을 위해서 제거되고 驅逐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민족의 人本思想은 여러 文人들의 文集 속

199) 鄭相珍, 「說話 속에 投影된 動物觀과 그 基底」, 《牛岩語文論集 1》, 釜山外國語大 國文科, 1991, 61쪽.

에 실려 있는 야담이라든가 일화 등에서도 확연히 살펴 볼 수 있으니, 이 중 柳夢仁의 《於于集》 권5에 실려 있는 「虎弄文」의 글을 예로 들어 본다면, 사람들을 해치는 잔교한 호랑이가 나타나자 武人인 洪義夫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는데 꿈에 偃鬼가²⁰⁰⁾ 호랑이를 타고 나타나 인간의 잔학함이 호랑이보다 훨씬 더함을 일장훈계하자 이에 洪將軍이 말을 끊으며, “그렇지 않다. 하늘은 사람으로서 하늘이 되게 하였다. 너도 하늘을 거역하면 하늘이 마땅히 죽이느니라”²⁰¹⁾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檀君神話에서부터 비롯된 이러한 人本思想은 후에 민담의 시대로 내려와서는 민중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더욱 치열하고 통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이 곧 하늘이다’라는 東學의 ‘人乃天’사상에까지 맥이 닿으면서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가장 확실하게 자리잡고 또한 綿綿하게 이어져 내려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호랑이說話 속에 나타난 報恩思想

호랑이 報恩譚에서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사상으로는 佛教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호랑이 報恩譚은 통일신라를 전후한 시기에 佛教의 知恩報恩思想의 영향을 받고 생성된 전설이라고 생각된다. 知恩報恩思想은 萬物은 알게 모르게 서로 돕고 도움받는 관계이므로 중생은 그 은혜를 感知하고 報謝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佛教의 倫理的 觀點에서 본 根本思想이다.

200) 偃鬼는 호랑이에게 잡혀먹힌 사람의 魂으로써 그 魂은 호랑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다시 잡아먹도록 만든다고 한다. 橫死한 사람은 다행히 代置시킬 수 있는 것을 확보하면 세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C.A.S. Williams, *Outlines of Chinese Symbolism & Art Motives*, 《중국문화 중국정신》, 이용찬 譯, 대원사, 1989, 457쪽.

201) 김호근·윤열수, 《한국호랑이》, 173쪽에서 참고인용.

이미 주지하다시피 韓國의 佛敎는 佛陀의 깨침이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정진하는 小乘佛敎的 성격보다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大慈大悲에 의해서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大乘佛敎²⁰²⁾의 성격이 강한데다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때에는 王權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貴族國家의 사상체계로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가 있으므로²⁰³⁾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宗敎의 내적 측면으로의 역할보다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외적측면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宗敎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佛敎가 이러한 倫理的 측면을 중요시하는 목적으로는 중생으로 하여금 惡行을 止息시키고 善行을 닦게하려는 ‘止惡修善’에 있다고 하거니와, 요컨대 倫理와 道德을 이용하여 宗敎的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²⁰⁴⁾ 따라서 호랑이報恩譚은 호랑이같이 흉악무도한 짐승도 부처의 大慈大悲한 布施에 의해 이전에 저질렀던 죄과를 회개하고 보은을 할 줄 아는 착한 동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성된 전설임이 확실하다고 본다. 즉 호랑이는 佛敎報恩思想의 선양을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된 장치라고 할 수 있으니, 그 이유로는 보은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설화 구성상으로도 보은 모티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²⁰⁵⁾ 「金現感虎傳說」을 볼 때에도 一然이 호랑이처녀를 부처가 事物에 感應한 것으로 파악하고서는 “이것은 다만 짐승의 本性이 어질기 때문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²⁰⁶⁾라고 論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짐승을 등장시켜 報恩思想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른바 佛敎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가장 큰 害惡을 끼치는 三毒²⁰⁷⁾ 중의 하나인 호랑이를

202) 《世界思想事典》，大洋書籍，1978，81쪽.

203) 李基白，〈韓國史新論〉，77쪽.

204) 金起東，〈國文學上の佛敎思想研究〉，11쪽.

205) 金永晩，「金現感虎說話에 나타난 佛敎思想考」，〈國語國文學〉제 18·19합집，41쪽.

206) 《三國遺事》「金現感虎」，非徒獸之性仁者也.

207) J. C. Cooper,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이윤기 譯，까치，1994，410쪽.

등장시킴으로써 報恩思想의 강조와 포교의 효과를 한 층 높일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작용한 듯 싶으니, 이러한 경우는 《三國遺事》에 소개된 「永才遇賊說話」²⁰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永才遇賊說話」의 내용은 신라 元聖王 때의 僧侶인 釋永才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鄉歌를 잘 하는 승려로 60여명의 도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에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도둑들을 和氣롭게 대하고 「遇賊歌」란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그들을 感化感動시켜 칼과 창을 버리게 하고 모두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로 굳이 도둑들을 등장시킨 이유로는 다른 어떠한 경우를 예로 들어 佛敎의 자비와 보은을 論할 때보다 匪도둑들과 같은 不汗黨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때 훨씬 효과가 倍加된다는 자명한 이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호랑이 報恩譚을 통해서 아무리 작고 흉한 미물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佛敎 특유의 生命尊重思想도 배어 있음을 아울러 엿볼 수가 있다. 호랑이 報恩譚은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儒敎의 孝烈思想이라든가 陰宅風水思想 등과 褶合된 후로는, 자비와 보은, 그리고 보은의 결과로 이루어진 남녀의 만남에서도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을 거두고 求道에 邁進함으로써 신앙적 성숙과 인격적 완성을 이룬다라는 보다 차원 높은 宗教的 觀念으로부터 一轉하여 시묘살이를 도와준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財貨 등을 얻어다 준다든지, 明堂을 점지받아서 子孫 萬代로 번창한다든지 등의 보다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幸福追求思想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드시 形而下學的인 저급의식으로 떨어졌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公利的인 가치를 추구하는 儒敎思想에 바탕을 둔 자연스러운 가치변화로 해석함이 온당할 듯 싶다.

3. 호랑이說話 속에 나타난 孝思想

208) 《三國遺事》卷5 避隱 第8, 永才遇賊.

우리 민족이 孝라는 관념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된 계기로는 三國時代가 국가적인 형태로의 整備를 갖추기 시작할 즈음, 우리 나라에 전래된 儒學의 영향으로 비롯되었으리라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厚葬 등 祖上崇拜의 신앙을 표시하는 풍습이 성행했었고,²⁰⁹⁾ 임금의 칭호도 고유한 奈勿麻立干 시대에 孝子에게 職一級을 下賜한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²¹⁰⁾ 孝思想은 전에는 일체 느끼지도 행해지지도 않다가 儒學이 전래됨으로써 그제서야 우리 민족의 관념 속에 자리잡은 것이 아니고, 儒學의 전래 이전에는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소규모적인 도덕관념이나 고유의 美風良俗 등 생활 윤리의 지렛대만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다가, 儒學의 전래로 말미암아 비로소 범 국가적인 규범과 세련되고도 합리적인 형식과 체제로 자리잡았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孝思想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이러한 孝思想은 일찌기 우리의 설화나 소설, 시가문학 속에서 끊임 없이 주제화되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²¹¹⁾ 儒學의 宗主國인 중국의 설화나 문학과를 비교해보더라도 孝에 관한한 중국의 것이 質量面에서 우리 나라의 것을 따라잡기 힘들고, 또한 孔子가 천하를 유람하던 시절에 “道가 行해지지 못하는 지라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뜰까 한다. 君子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했음을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조차도 孔子의 敎學思想이 전개되기 이전부터 우리 나라는 ‘君子國’, 혹은 ‘東方禮義之國’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것으로 보아²¹²⁾ 孝思想이 한민족 고유의 전통사상이라는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후 孝思想은 儒學의 사상을 建國理念으로 내세운 朝鮮時代로 접어들면서 名實相符한 최고 최대의 윤리 덕목으로 자리 잡아, 三綱五倫의 덕목으로 가정의 윤리와

209) 李基白, 《韓國史新論》, 49쪽.

210) 李御寧, 《韓國人の神話》, 114쪽.

211) 李樹鳳, 《百濟文化圈域의 孝烈說話研究》,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7, 9쪽.

212) 金益洙, 《韓國의 孝思想》, 瑞文堂, 104쪽, 1977.

사회 윤리를 통한 국가의 정립, 즉 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에 적합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世宗大王 당시에는 《三綱行實圖》와 《五倫行實圖》 등을 출간하고, 成宗 때에는 《二倫行實圖》와 《小學》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하고 보급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전국에 散在해 있는 수 많은 孝子나 烈女의 旌閭門 혹은 碑閣 등을 볼 때에도²¹³⁾ 朝鮮時代 때에 孝思想이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력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민족의 전통사상인 孝가 儒學의 전래로 말미암아 더욱 형식화되고 심화되었음은 前述한 바와 같은데 儒學의 본질은 天道가 內在해 있고 현실과 遊離되지 않은, 즉 현실에 발을 딛고 萬物을 명석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人道主義思想으로서 이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근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²¹⁴⁾ 그러나 孝와 관련된 설화에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선 합리성이나 인간생명의 존중이라는 근본원리가 예외적으로 파괴되거나 무시된 채 나타난다 할찌라도 그것이 孝를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칭송과 下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孝에 대한 한민족의 극단적인 숭배를 感得할 수 있다. 出天之孝子들의 이야기인 吳浚과 都氏孝子, 安孝婦傳說 등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니, 이들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아무런 댓가나 요구도 없이 시묘살이를 도와주고 날마다 고기를 물어다 주며, 炎夏의 계절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紅柿를 구해주며, 큰 강을 건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 결국 시부모에게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등은 儒敎的 합리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이야기들은 《孝經》에 나와 있는바, “孝道와 友愛가 지극하면 神明에 통하고 온 세상이 빛나 안될 것이 없다”²¹⁵⁾는 구절이나 朝鮮朝 宣祖 당시의 禮學의 태두인

213) 李樹鳳, 앞의 책, 이 책 속에 나오는 現傳하는 孝子, 烈女의 旌閭門이나 碑閣 등은 湖南地域에서만도 약 920여개로 集散된다.

214) 柳承國, 《韓國의 儒學思想》, 三省出版社, 1981, 14쪽.

沙溪 金長生(1548~1631)이 임금에게 上疏한 바와 같이 “楊子は 말하기를 어버이를 섬겨 그 足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아는 자는 舜임금의 孝道에 비길 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만약에 나의 極盡한 孝道를 다할 수 있다면 聖人の 孝道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 殿下는 마땅히 항상 足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어 하루 12時에 내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點檢하여 大舜과 같이 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止慈止孝가 다 그 節에 맞아 百姓의 觀感, 鳥獸의 生育이 다 여기에 根本할 것이다. 옳드려 바라옵건대 이와 같은 道理를 깊이 살피 주시기를 바랍니다.”²¹⁶⁾라는 孝理念의 제시에 대한 충실한 具現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衷情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으로 효성을 다하는 참효자는 感化萬物(鳥獸의 生育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될 것²¹⁷⁾이니 제 아무리 惡한 호랑이일찌라도 참효자를 도와주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孝說話에 나오는 호랑이 역시 報恩說話 속에 나오는 호랑이가 佛教思想을 포교 혹은 선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세워 惡虎에서 善虎로의 이미지변화를 일으킨 장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孝사상을 가장 강렬하고 적절하게 강조할 수 있는 의도적인 장치 구실을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孝感化萬物思想은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도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가장 잘 형상화시킨 설화로 「호랑이 孝子說話」를 들 수 있겠다.

“늙은 老母를 모시는 나뭇꾼이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자신을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호랑이를 향해 나뭇꾼은 얼른 옳드려 절을 한 뒤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말하길, 사실 당신은 나의 형님이시며 어머님께서는 어느날 갑자기 호랑이로 변하여

215) 《孝經》, 孝悌之至 通於神明 光于四海 無所不通.

216) 金益洙, 《韓國의 孝思想》, 116쪽.

217) 李虎周, 「호랑이說話에 나타난 韓國人의 意識考察」, 高麗大學校 碩士論文, 1982, 52쪽.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산에서만 사는 형님을 생각하시며 날마다 눈물짓고 사신다라고 한다. 나뭇꾼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진실로 착각한 호랑이는 그날 이후 한 달에 2번씩 멧돼지를 잡아다 드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기 새끼들의 꼬리에다가 흰 형젖을 매어 달게 하고 자신은 食飮을 全閉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따라 죽고 말았다.”²¹⁸⁾

이제까지는 儒敎的 孝思想을 指向하면서도 儒敎的 합리성이 결여된 설화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儒敎的 生命尊重思想을 결여한 孝說話를 살펴보기로 한다. 「호랑이에게 자식 준 孝婦傳說」은 봉양하는 老母를 위해 老母의 밥을 빼앗아 먹는 어린 아이를 땅 속에 埋葬시키려 하는 「孫順埋兒傳說」²¹⁹⁾의 맥을 잇는 전설로 보여진다. 孝婦가 호랑이의 먹이가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媿父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 먹이로 주는 행위는 전통적인 孝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孝의 개념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부모에 대한 가장 큰 불효 중의 하나는 後嗣를 잇지 못함으로써 家門의 代를 끊어 놓는 일일전대, 아무리 媿父를 구하기 급급해서 苦肉之策으로 벌인 일이라해도 媿父의 친혈육을, 그것도 직접적으로 대를 이을 책임이 있는 아들을 死地에 밀어 넣었다는 행위는 한 편으로 생각할 때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설화 중의 하나인 「向得割股傳說」²²⁰⁾도 마찬가지이다. 熊川州에 사는 向得이란 말단 관리가 흉년이 들어 아버지가 굶어죽게 되자 자신의 넓적다리살을 베어 봉양을 했다는 이 전설 역시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고 하여 머리카락 한 올을 千金같이 여기는 유교적 孝사상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모순되는 孝의 실천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 목숨이 구해지고 허기를 면했다손 치더라도 시부나 부친, 모친이

218) 韓相壽, 《韓國호랑이說話集》, 74쪽.

219) 《三國遺事》, 卷5 孝善 第 9, 孫順埋兒.

220) 《三國遺事》, 卷5 孝善 第 9, 向得舍知 割股供親.

얼마나 마음이 편할 수 있겠고, 효부, 효자를 두었다는 자부심에 뿌듯할 수 있을까도 의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물고 가는 호랑이와 끝까지 투쟁해서 결국 남편을 구해낸 金氏 婦人처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지극히 참효심을 발휘하면 神明에 통하고 온 세상이 빛나 안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觀感과 鳥獸의 生育이 다 거기에 根本하는 고로 자식을 호랑이에게 던져주고, 땅에 묻고, 자기 살을 베기 전에 한 번 쯤 다른 방법을 추구했어야 됴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에 대한 기존의 비판으로는 未來(子孫)보다 過去(父母)를 더 존중하므로써 時間을 非生産的인 것으로 파악한 인사이더적인 時間觀과 倫理觀,²²¹⁾ 祖上(어른)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여야 하며 자신을 위하여 子孫이 희생해야 하는 上位指向的인 下位者의 희생정신에 바탕한 孝意識²²²⁾ 등이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호구발차담이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는 순간까지도 복수하려고 비녀를 목에다가 꽂은 冤魂者에게는 오히려 몹쓸 짓을 한 결과가 되므로 報恩譚이라기 보다는 恩不恩譚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호랑이에게 자식 준 孝婦傳說」은 孝를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패륜적 방법이라는 모순을 행했으므로 孝行譚이라기 보다는 孝不孝譚이라고 규정지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자식 준 孝婦」는 孝사상의 강조가 너무 과잉된 감이 있는 전설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로 孝를 행하려 하지는 않았으므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본다. 孝를 행하는데 있어서 盡力을 다한 것으로는 「黃八道傳說」 역시 다른 전설 속의 인물들에 비하여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黃八道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孝를 행하려 했으므로 옳지 못했고 또한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은 前述한 바가 있으므로 더 이상 詳論치 않겠다. 다만 이 전설을 口述하는 동안 話者나 聽者 모두가 느끼기를 주인공의 末

221) 李御寧, 《韓國人の 神話》, 118쪽.

222) 李虎周, 앞의 책, 57쪽.

路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측은했던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변이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옛날 雲長山에 金書房이라는 孝子が 있었다. 老母가 고기반찬을 좋아하여 고기반찬을 항상 올려 드릴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道士 한 명이 와서 호랑이로 둔갑할 수 있는 책을 전해주었다. 밤마다 호랑이로 변한 金書房은 멧돼지를 잡아 어머니께 드렸으나 호랑이로 변한 남편을 무서워한 아내가 책을 불살랐다. 다시 人間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1000日 동안 기도를 드렸다. 1000日 기도를 끝낸 어머니가 스님이 준 두루마리를 불사르자 아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²²³⁾

원래의 「黃八道傳說」에 비하여 남의 집 개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즉 개 도둑으로 만들지 않고 슬쩍 山 속의 멧돼지를 잡는 것으로 바꿔주는 등 反倫理的인 측면을 많이 완화시켜줌으로써 행복한 결말로 맺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호랑이로 변한다는 부분이 마땅치 않았는지 다시 다음과 같이 2차 변이를 일으키게 된다.

“病든 老母를 모시는 孝子が 있었는데 하루는 醫員이 찾아 와서 개의 肝 1000개를 먹어야지만 어머니의 病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한다. 孝子が 개를 1000마리를 살 돈이 없어 막막한 심정을 갖고 서낭당에 기도를 올리는데 孝子の 孝誠에 감동한 호랑이가 나타나 그 날부터 매일 매일 개를 물어다 주어 결국 어머니의 병이 낫게 되고 호랑이와 孝子は 친구가 되어 후에 나라에서 벼슬도 얻고 행복하게 잘 지냈다.”²²⁴⁾

223) 《口碑文學大系》 全北(4), 444쪽.

224) 韓相壽, 《韓國호랑이說話集》, 86쪽.

신통력을 부릴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들인 道士나 스님에서 신통력을 부릴 수 없는 醫員으로 대체 등장시킴으로써 주인공이 둔감할 길을 未然에 封鎖하였고, 개를 잡는 것이 아닌 사는 것으로 변환시키고 본인이 직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孝誠에 감동한 호랑이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바뀌춤으로써 완벽하고도 倫理的인 한 편의 호랑이加護譚으로 만들어 버렸다.

4. 호랑이說話 속에 나타난 民衆思想

民衆意識이란 일하면서 사는 생활에 매여서 일의 내용과 흥취를 자기 것으로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의 사회적 처지를 자각하고 잘못된 세상을 비판하는 의식을 말한다.²²⁵⁾ 이러한 民衆意識, 혹은 思想이 생성, 발전될 수 있었던 要因과 基盤을 살펴본다면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민중은 생산의 실제 담당자이면서도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역사를 주도하는 입장에 서지 못하고 항상 被支配者的 立場으로 일관했으나, 완만하나마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보다 나은 처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當該階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支配層의 被支配層에 대한 인식이 각 시대마다 나름의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개선되는 추세²²⁶⁾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民衆思想은 민중들이 享有하고, 즐기고, 전승시킨 설화에 진하게 스며들 수 밖에 없었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民衆思想이 나타난 설화장르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 민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민담 속에 나오는 호랑이는 王이나 權力家와

225) 趙東一, 《韓國說話와 民衆意識》, 314쪽.

226) 李泰鎮, 「貴族兩班社會의 民衆生活」, 《韓國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126쪽.

같은 당시의 爲政者階級을 상징하고, 토끼나 할머니, 아이들 등은 被治者階級인 민중 혹은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호랑이를 王으로 상징시키는 경우는 비단 민담 뿐만이 아니고 여타의 문학장르 중에서도 어렵지않게 散見할 수 있으니 우선 《說文解字》에서 호랑이를 칭하여 이르기를 “호랑이는 산짐승 중의 王이다”²²⁷⁾라고 했고, 朝鮮朝 仁祖 때의 사람인 崔孝騫(1608~1671)이 호랑이를 소재로 하여 창작한 假傳인 《山君傳》에서도 호랑이를 王으로 설정하고 있다.²²⁸⁾ 古典小說 쪽으로 들어와서도 이러한 호랑이의 상징은 계속 유지되는데 특히 「토끼傳」, 「두껍傳」, 「鼠同知傳」, 「鹿處士宴會傳」 등 동물들을 擬人化한 諷刺小說 쪽에 가서는 거의가 山君, 白虎山君 등 王이나 實權者의 이미지로 고정되다시피 되어서 나온다. 「토끼傳」에서는 호랑이를 일러 말하기를, “시속으로 비하면은 산군은 수령같고 여우는 간물출패, 사냥개는 세도아전, 너구리·멧돼지며 쥐와 다람쥐는 굶지 않는 백성이라.”²²⁹⁾라고 나와 있고, 「두껍傳」에서는 “우리집에 경연을 배설하오매 각처 손님을 청하려니와 만일 백호산군을 청하지 아니하오면 후일에 필경 한이 될 듯 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장신생이 눈을 감고 오래 생각을 하다가 이르되 백호산군은 힘만 믿으며 친구를 모르고 또한 산군이 착석에 참여하면 각처 손님들이 필경 황겁하여 잘 놀지 못할 것이니 청치 않음이 마땅하도다.”²³⁰⁾라고 하여 호랑이를 우둔하고 포악한 君主로 묘사를 하고 있다. 「鼠同知傳」에서는 “산군은 백 짐승에 장수되시고 천 짐승에 왕이 되사 인의를 짐승에게 베푸시며 덕을 짐승에게 끼치시며 태산오악에 천만 짐승이 산군의 교화를 힘입었으면....”²³¹⁾이라 나오고, 「鹿處士宴會」에서도 사슴의 生日날에 두려운 존재인 白虎山君을 제외한 山族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나온다.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비교해보면, “중국인들은 호랑이

227) 《事文類聚》, 虎附「群書要語」, 虎山獸之君也.

228) 金昌龍, 「山君傳注疏」, 《東方學志》, 1985, 143쪽.

229) 韓國古典文學全集(8), 瑞文堂, 1984.

230) 韓國古典文學全集(20), 瑞文堂, 1984.

231) 韓國古典文學全集(20), 瑞文堂, 1984.

를 맹수 중의 王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실재적 혹은 상상적인 성질은 다른 어떤 야수보다도 훨씬 많은 은유적인 이야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것은 군림하는 자의 위엄과 준엄함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것의 용모나 포효하는 소리는 위협과 두려움의 뜻이다.”²³²⁾라는 것으로 보아 호랑이가 王으로 상징되는 현상은 중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또한 꿈을 예로 든다 할 때에도 꿈에 나타나는 호랑이는 항상 권력, 권세가, 출세, 富, 財閥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²³³⁾에서도 호랑이는 민담 속에서 王이나 권력가를 상징한다라는 논리에 보충이 된다 하겠으니, 꿈이란 완전한 心的 現象이며 바로 어떤 所望의 充足이기 때문이다.²³⁴⁾ 따라서 민담 속의 호랑이와 토끼는 단순한 관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대결 혹은 治者と 被治者와의 대결 등 인간사회 조직에서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무력한 민중이, 횡포를 일삼는 爲政者層을 응징하는 통쾌함을 맛보는(평소에 가졌던 所望 充足) 기회로 잡았을 것이 예상된다.²³⁵⁾ 민담 속에 나오는 호랑이들은 항상 부정적이며 이는 대상의 原型質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설화장르가 바로 민담이기 때문임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민담 중에서도 民衆思想의 표출이란 차원에서 볼 때 本格譚과 動物譚, 笑譚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 우선 본격담 속의 「男妹日月說話」와 「쇠똥에 자빠진 범」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민담들 속에 나오는 민중(아이들과 할머니)은 援助者들의 도움없이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호랑이라는 불의의 강자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에는 공통점을 보인다고 하겠다. 「男妹日月說話」속의 호랑이는 잔학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머니로 보이게끔 위장도 할 줄 아는

232) C. A. S. Williams, 앞의 책, 455쪽.

233) 韓建德, 《현대인의 꿈풀이》, 밀알, 289쪽, 1992.

234) S. Freud, *Die Traumdeutung*, 《꿈의 解釋》, 金大圭 譯, 東西文化社, 136쪽, 1976.

235) 成者說, 「民譚의 韓國化 變移樣相」, 《口碑文學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53쪽.

간교함과 거듭되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등을 골고루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나, 어머니는 호랑이의 가혹하고도 부당한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못하고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로 나오고, 아이들 역시 호랑이의 공포로부터 헤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기껏 도망을 쳐서 古木 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절대자인 하느님에게 소원하여서만 겨우 죽음을 면하는 소극적 투쟁을 벌인다. 그러나 「쇠뿔에 자빠진 범」 속의 할머니는 「男妹日月說話」 속의 아이들이나 어머니보다 별로 사정이 나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들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세계에 맞선다. 호랑이가 山으로부터 내려와 할머니가 애써서 가꾼 무우밭을 망쳐놓아도 할머니는 일단은 아무런 저항도 못한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피를 내어 호랑이에게 팔죽을 쑤어준다고 속인 다음에 재, 고춧가루, 바늘, 쇠뿔, 멧석, 지게 등의 援助者들을 집합시켜 그들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를 퇴치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쇠뿔에 자빠진 범」 속에 나오는 할머니는 世界와의 절박하고도 열세한 투쟁 가운데에서도 어떤 절대적 존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용감히 호랑이와 싸운다는 점에서 「男妹日月說話」 보다는 훨씬 進一步한 민담이라고 할 수 있다. 或者는 이를 일러 援助者의 도움없이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했었을 것이므로 自主적이고 능동적인 투쟁의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援助者들의 면면을 一瞥해 볼 때 「男妹日月說話」 속의 하느님과 같은 절대적 존재이기는 커녕, 오히려 할머니보다도 모두 못한 미미한 존재들로서 이들의 작은 힘이 서로 협력하여 일궈낸 값진 승리인만큼 여타의 어느 민담보다도 완전한 의미와 성숙한 차원에서의 민중의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승리를 보여준 민담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담이나 소담 쪽으로 들어 오게 되면 民衆思想은 더욱 빛을 발휘하여 世界로부터의 위협적인 도전을 받아 대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世界를 향해 敢然히 도전하여 승리를 쟁취하기도 하는 양상으로 발전한다. 꼬리로 고기 낚는 호랑이와 참새먹으려다 불에 타서 죽은 호랑

이민담 속에 나오는 토끼는 도대체 두렵고 당황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무궁무진한 智略과 奇智로써 난관을 헤쳐나가고 결국 우둔한 호랑이를 잡고 만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에서의 토끼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 속에 뛰어 들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경지로까지 발전한다. 토끼와 호랑이민담 뿐만 아니라 소금장수와 얽힌 호랑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니 소금장수는 호랑이에게 집어 삼킴을 당하였어도 오히려 호랑이 배 속에 있는 肝을 소금에 찍어서 술안주로 삼는 등 여유만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면에서부터 호랑이에 대한 우월감을 보이고, 직접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가 참기름 바른 강아지로 수십마리의 호랑이들을 사냥하고, 잠자는 호랑이 코에다가 十字를 칼로 그어 가죽을 얻는다는 등의 민담에서 우리는 더 이상 世界로부터의 도전에 방어만 급급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 世界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항하여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투쟁을 펼치는 최고조로 발전된 民衆思想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5. 호랑이原型的의 時代的 變遷

이제 끝으로 호랑이설화를 神話時代, 傳說時代, 民譚時代로 나누어 時代的으로 어떠한 이미지로 변모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試考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蛇足에 불과하겠으나 오해가 있을 것도 같기에 신화시대, 전설시대, 민담시대라고 단정적 느낌이 들도록 분류한 까닭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차원에서 분류한 것 뿐이지 신화시대라고 해서 곧 그것이 신화의 생성과 소멸을 의미하고, 전설시대라고 해서 곧 그것이 전설의 생성과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신화시대, 전설시대, 민담시대 등은 각각의 설화장르의 興隆期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시대에 어느 설화장르가 가장 주도적인 傳承者의 역할을 담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음이다. 이는 마치 現代를 일러서 映像의 時代라고 누구 하나 주저없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현대의 예술형태로는 오로지 映畵나 TV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과도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신화, 전설, 민담의 구분을 시대적, 順次的으로 배열하면, 신화시대가 제일 처음이고 다음이 전설시대, 그리고 끝으로 민담시대로 나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前述한 바와도 같이 설화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비합리성에서 벗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식의 변모과정과 함께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호랑이의 原型은 신화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설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混在한 채로 그리고 민담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시 되돌아 왔음을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 알 수 있었다. 신화와 민담에서는 호랑이가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전설에서만 유독 긍정적인 이미지의 호랑이가 존재하는 第一次的 까닭으로는 앞서서 밝힌 바와도 같이 유달리 시대적 조류와 사상적 경향에 간섭받기 쉬운 장르가 바로 전설이기 때문이다. 佛教 隆盛期에는 佛教的인 요소가 가미되고, 儒教 隆盛期에는 儒教的인 요소가 가미되었음은 앞에서 詳論한 바가 있으므로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고 다만 史的인 實例만을 하나 들어 본다면, 現傳하는 문헌설화집은 거의가 다 朝鮮時代 때 편찬된 설화집들이다. 그런데 어느 문집을 들여다 보아도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즐겨 이야기하는 민담은 거의 찾을 수 없으나, 儒教的 윤리를 고취시키는 孝烈전설 등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까닭으로는 우리나라의 구비문학을 기록문학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貴族이나 兩班이었고, 그 전환은 그들의 요구에 합당하게 진행되었음²³⁶⁾을 볼 때 전설이 신화나 민담에 비해서 當時代의 여건에 훨씬 많이 좌우되는 장르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겠다. 그 외에 장르의 구조와 형태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신화와 민담은 유사한 점이 많으나, 전설은 앞의 두 장르와 비교해

236) 張德順, 「口碑文學과 記錄文學」,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88쪽.

볼 때 형태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내보인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우선 전승집단의 主觀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적인 현대인의 客觀에 의하면 신화와 민담은 원칙적으로 非事實인 반면, 전설은 半事實·半非事實이며, 전달양상면에서 볼 때에도 신화와 민담은 일정한 고정형태로 始終一貫하는 반면, 전설은 신축성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신화와 민담이 時空的인 측면에서 뚜렷한 제약을 받지않는 대신에, 전설은 時空의 제약이 이들보다는 훨씬 뚜렷하며, 自然現象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신화와 일부의 민담(男妹日月說話)에서는 太初的 설명을 주로 하는 반면, 전설에서는 地名·地形들 등의 緣起的 설명을 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²³⁷⁾ 끝으로 주인공의 性格面을 보더라도 신화와 민담에서의 주인공들은 각각 초월적 존재와 비초월적 존재라는 차이는 보이지만 결국 세계와의 대결에서 우위에 선다는 점이 공통되는 반면, 전설에서의 주인공은 세계와의 대결에서 대부분 열세에 놓여진다는 점을 볼 때에도 앞의 두 장르와는 달리 전설에서만 유독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蓋然性이 짙다고 할 수 있다.

237) 張籌根, 「韓國口碑文學史 上」, 《韓國文化史大系(10)》, 641쪽의 내용 요약.

IV. 結 論

이상으로 호랑이에 대한 한국인의 原型抽出을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기타 口碑文學의 제반 장르들을 통해서 알아 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의식과 사상의 고찰도 아울러 시도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開國神話인 檀君神話에서부터 호랑이는 조급과 패배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나온다. 이에 대하여는 原始 토tem이즘과 관련하여 여러 학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호랑이에 대한 한민족의 관념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으리라는 관념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虎景과 甄萱神話는 兩篇 모두 建國神話的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단 신화 속에 편입을 시키긴 하였으나 워낙 후대에 나온 신화인데다가 인위적인 조작의 분위기가 농후한 고로 이 신화 속에 나오는 호랑이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저으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음도 밝혔다. 전설 속의 호랑이들은 중요 화소별로 人物英雄, 虎患, 報恩, 加護, 遁甲傳說 등으로 분류한 후, 孝子와 烈女 등을 가호하는 加護譚 속 호랑이를 제외하고는 報恩譚 속의 호랑이는 보은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잡아 먹는 흉물로, 遁甲譚 속의 호랑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채로 효행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순연한 긍정적 이미지로서의 호랑이로는 볼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전설과 유사한 중국의 전설들도 아울러 소개함으로써 兩國간 영향의 相互授受關係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본 결과 그 原型的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우리 나라나 별다른 차이를 찾을 수 없었음도 볼 수 있었다. 또한 「金現感虎傳說」이라든가 人物英雄傳說, 遁甲傳說 등을 통해서 보았을 때, 호랑이가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님을 통해 한민족의 人本主義的 사상체계를 보았고, 報恩담은 佛敎的 報恩思想을 포교하기 위해서 생성된 전설이고, 加護譚은 100% 儒敎的 윤리인 孝·烈 등과 결부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儒敎가 隆盛하던 시기에 이들의 이념

을 전하기 위해서 생성된 전설로 파악하였다. 민담 속에 나오는 호랑이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설화 장르 중에서도 민담이 대상의 原型을 가장 잘 간직한다는 점을 볼 때에도 한민족의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서 부정적 이미지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민중들의 자아에 대한 각성과 아울러 세계에 대한 인식도 성숙되고 발전되었음을 통해, 호랑이를 당시에 부패하고 무능했던 권력층으로 비유를 했고 토끼와 같은 약자를 민중들로 비유하여 세계에 대한 自我의 우위라는 민담의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었음도 밝혔다. 이 외에도 민중들의 實生活的 기능을 우선시하는 民謠나 가장 정확하게 心象을 표현하는 俗談 등 여타의 구비문학 장르를 보충해서 볼 때에도 호랑이의 原型은 부정적이었음을 보았고 巫俗과도 같은 民俗學的인 측면에서도 역시 호랑이는 부정적인 原型이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호랑이에 대한 부정적 原型을 토대로 표출된 한국인의 사상을 살핀 결과, 아무리 타당한 동기가 있다 할찌라도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과 실제로 한반도에서는 호랑이를 山神 등으로 모셨다는 예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들어 한민족의 가장 뿌리 깊고 강한 사상은 人本主義的인 사상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報恩譚과 加護譚을 통해서도 설화 장르 중에서도 전설이 가장 당시의 상황과 조류 등에 간섭을 많이 받았던 장르였음을 밝힘과 동시에 비록 儒敎나 佛敎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욱 발전되기는 했으나 原初的으로 한민족은 孝至上主義的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음도 알 수 있었다. 민담에서 거의 획일적으로 권력층으로 상징된 호랑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때, 한민족의 강인하고 끈질긴 民衆思想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설화의 時代的 변천상은 신화의 시대 이후로는 전설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민담의 시대로 흘러갔다는 것이 거의 통설임을 볼 때, 신화시대의 부정적인 호랑이의 이미지를 거쳐 전설의 시대로 접어들자 당시의 시대사상에 맞게끔 긍정적인 모습으로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 후 다시 민담의 시대로 들어 오면서 民衆意識의 성장

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호랑이의 原型이 되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신화와 민담, 전설간의 차이점은 각 장르간의 형태적인 면에서 起因되는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資料

- 金富軾,《三國史記》,李丙燾 譯,乙酉文化社,1983.
- 김호근·윤열수,《한국호랑이》,悅話堂,1986.
- 《明心寶鑑》,李民樹 譯,乙酉文化社,1972.
- 《山海經》,鄭在書 譯,民音社,1985.
- 徐大錫,《朝鮮朝文獻說話輯要(1)(2)》,集文堂,1991.
- 孫道心,《호랑이》,서울신문사,1973.
- 安鼎福,《東史綱目》,古典國譯叢書,民族文化推進會,1967.
- 《五倫行實圖》,李民樹 譯,乙酉文化社,1976.
- 李家源,《조선 호랑이 이야기》,학민사,1993.
- 李民樹,《朝鮮傳》,探究堂,1995.
- 李信馥,《韓國의 說話》,乙酉文化社,1974.
- 李周洪,《中國民譚選》,正音社,1975.
- 一 然,《三國遺事》,李民樹 譯,乙酉文化社,1983.
- 崔常壽,《韓國民間傳說集》,通文館,1984.
- 祝 穆,《事文類聚》,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 《韓國古典文學全集》,(8)(20)권,瑞文堂,1984.
- 韓國民俗學會,《韓國俗談集》,瑞文堂,1972.
- 《한국사(2)》,한길사,1994.
- 韓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口碑文學大系》,서울 1권.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京畿 2, 3, 4, 5, 8, 9권.

- _____ , 《韓國口碑文學大系》, 江原 1, 2, 3, 6, 7권.
- _____ , 《韓國口碑文學大系》, 忠北 1, 2, 4권.
- _____ , 《韓國口碑文學大系》, 忠南 1, 2, 5, 6권.
- _____ , 《韓國口碑文學大系》, 全北 1, 2, 4권.
- _____ , 《韓國口碑文學大系》, 全南 1, 2, 3, 4, 5, 6, 7, 9, 10, 11, 12권.
- _____ , 《韓國口碑文學大系》, 慶北 1, 2,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권.
- _____ , 《韓國口碑文學大系》, 慶南 1, 2, 3, 4, 5, 6, 10, 11권.
- 韓相壽, 《韓國호랑이說話集》, 文志社, 1987.
- 洪萬宗, 《海東異蹟》, 李錫浩 譯, 乙酉文化社, 1982.
- _____ , 《旬五志》, 李民樹 譯, 乙酉文化社, 1971.
- 《孝經》, 朴一峰 譯, 育文社, 1991.

* 著 書 · 論 文

- 姜秦玉, 「둔갑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 양상」, 《문학과 비평5호》, 문학과 비평사, 1988.
- 金起東, 《國文學上の 佛教思想研究》, 進明文化社, 1973.
- _____ , 《李朝時代小說論》, 二友, 1973.
- 金道煥, 「韓國 俗談에 反映된 嫌惡의 性格 特性」, 《교육논집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978.
- 金文善, 「호랑이 報恩說話의 傳承樣相과 形成過程」, 《靑荷成博士耆兆先生 華甲紀念論叢》, 1993.

- _____, 「動物報恩說話研究」, 韓國教員大學校 碩士論文, 1992.
- 김병웅, 「동물속담의 심리적 고찰」, 《靑荷成博士耆兆先生華甲紀念論叢》, 1993.
- 金善豊, 「江陵 虎狼說話 考」, 《새국어교육》 18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74.
- _____, 「俗談에 나타난 民族性」, 《한국민속학5호》, 민속학회, 1972.
- 金烈圭, 「民間傳承과 韓國的인 것」, 《韓國思想의 源泉》, 博英社, 1976.
- 金永晩, 「金現感虎傳說에 나타난 佛敎思想攷」, 《국어국문학18·19집》.
- 金允泰, 「호랑이說話에 나타난 韓國人의 意識構造」,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4.
- 金益洙, 《韓國의 孝思想》, 瑞文堂, 1977.
- 金在煥, 「說話 속의 動物論」, 《東義論集8집》, 동의대학교, 1983.
- 金廷鶴,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4.
- 金昌龍, 《우리 옛문학론》, 새문사, 1991.
- _____, 《韓中假傳文學의 研究》, 開文社, 1985.
- _____, 「山君傳注疏」, 《東方學志46·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 金昌換, 「動物學的으로 본 호랑이의 生態와 그 氣質」, 《敎養8》, 고려대학교, 1971.
-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 羅慶洙, 「男妹日月說話의 研究」, 《어문론집10·11합병》, 전남대학교, 1989.
- 柳承國, 《韓國의 儒學思想》, 三省出版社, 1981.
- 柳增善, 「虎狼文學과 民俗」, 《語文學14호》, 한국어문학회, 1966.
- 朴桂弘, 《韓國民俗研究》, 螢雪出版社, 1982.
- 朴大福, 「古代小說에 나타난 動物觀」, 《어문론집11》,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 朴湧植,《韓國說話의 原始宗教思想研究》, 一志社, 1984.
- 成耆說,《韓國口碑傳承의 研究》, 一潮閣, 1976.
- _____,「民譚의 韓國化 變移樣相」,《口碑文學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蘇在英,「古典文學에 나타난 호랑이의 氣質과 精神」,《教養8》, 고려대학교, 1971.
- 孫晉泰,《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 _____,《民俗學論攷》, 大光文化社, 1984.
- 梁在淵·張德順·任東權·崔吉城,《韓國風俗誌》, 乙酉文化社, 1971.
- 梁柱東,《古歌研究》, 一潮閣, 1977.
- 李家源,《燕岩小說研究》, 乙酉文化社, 1965.
- 李慶馥,「李朝 動物擬人小說 研究」,《어문론집13》,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 李基白,《韓國史新論》, 一潮閣, 1976.
- 李符永,「호랑이와 세 아이」,《文學思想4호》,文學思想社, 1973.
- _____,「죽음과 救援의 象徴」,《文學思想5호》,文學思想社, 1973.
- _____,《分析心理學》, 一潮閣, 1978.
- _____,「分析心理學과 民談」,《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 李樹鳳,「忠北의 虎譚研究」,《새터姜漢泳教授古稀紀念 韓國판소리·古典文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983.
- _____,《百濟文化圈域의 孝烈說話研究》,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7.
- 李御寧,《韓國人の 神話》, 瑞文堂, 1972.
- 李 玉,「古代 韓國人の 動物觀과 그 描寫」,《東方學志46·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 李泰文,「세계인식의 두가지 태도」,《열상고전연구4집》, 연세대학교, 1991.

- 李泰鎮, 「貴族兩班社會의 民衆生活」, 《韓國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1.
- 李虎周, 「호랑이說話에 나타난 韓國人의 意識 考察」, 高麗大學校 碩士論文, 1982.
- 印權煥, 「韓國民俗에 나타난 호랑이」, 《教養8호》, 고려대학교, 1971.
- 林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二友, 1981.
- 任東權, 「韓國口碑文學史 下」, 《韓國文化史大系(1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7.
- _____, 《韓國民謠集(1)(2)》, 集文堂, 1961.
- 任哲宰, 「호랑이에 대한 韓國人의 생각」, 《한국호랑이》, 悅話堂, 1986.
- 林在海, 「說話의 存在樣式과 갈래體系」, 《口碑文學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 _____, 《說話文學概說》, 二友, 1975.
- _____, 「口碑文學과 記錄文學」, 《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 張德順·趙東一·徐大錫·曹喜雄,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 張籌根, 「韓國口碑文學史 上」, 《韓國文化史大系(1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7.
- 鄭相珍, 「說話 속에 投影된 動物觀과 그 基底」, 《牛岩語文論集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문학과, 1991.
- 趙東一, 《우리 문학과의 만남》, 弘盛社, 1985.
- _____, 《한국문학통사(1)》, 知識産業社, 1989.
- _____, 《韓國說話와 民衆意識》, 正音社, 1985.
- _____, 「설화에 나타난 변신의 의미」, 《문학과 비평5호》, 문학과 비평사, 1988.

-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探究堂, 1972.
- 曹喜雄, 「韓國笑譚의 研究」, 《語文學3집》, 국민대학교, 1984.
-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2, 4, 5권, 玄岩社, 1973.
- 崔來沃, 《韓國口碑傳說의 研究》, 一潮閣, 1981.
- 崔雲植, 「한국민담에 나타난 변신의 양식과 의미」, 《문학과 비평5호》, 문학과 비평사, 1988.
- 崔喆, 《鄉歌의 文學的 解釋》, 연세대학교출판부, 1990.
- 河孝吉, 《강사리 범굿》, 悅話堂, 1989.
- 韓建德, 《현대인의 꿈풀이》, 밀알, 1992.
- 許椿, 「說話와 古小說의 虎」, 《연세어문학18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 홍태한, 「說話變移의 發生要因과 方向研究」, 《高凰論集9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1.
- 黃貞化, 「韓國의 호랑이民譚 研究」, 全南大學校 碩士論文, 1990.
- 黃滄江, 「韓國民族說話와 호랑이」, 《民俗文學研究》, 正音社, 1975.
- J. C. Cooper,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譯, 까치, 1994.
- J. G. Frazer, *The Golden Bough*, 《황금가지》, 張秉吉 譯, 三省出版社, 1977.
- C. A. S. Williams, *Outlines of Chinese Symbolism & Art Motives*, 《중국문화 중국정신》, 이용찬 譯, 대원사, 1989.
- S. Freud, *Die Traumdeutung*, 《꿈의 解釋》, 金大圭 譯, 東西文化社, 1976.

* 其他 事典類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1993.

《새국어대사전》,金星出版社, 1991.

《世界思想事典》,大洋書籍, 1978.

《哲學大事典》,學園社, 1964.

《韓國의 상징문화사전》,東亞出版社, 1993.

ABSTRACT

A TIGER'S ARCHETYPE IN ORAL LITERATURE

by KIM PEEL LAE

This thesis was written for the tiger's archetype and Korean ideology in a fable, folk song, proverb, and folk customs. Tiger described a badly in Korean consciousness. First, tiger was hasty and a defeat in National Foundation Myth(Tangoon myth). Tiger was good image on the Hokyung and Kyunhwun myth, but these myths had already left after that time subsequent myths. So these have nothing to do with Korean archtype. Legends were classified into five(the tale of hero, the tale of ravages by tiger, the tale of requital by tiger, the tale of protect by tiger, and the tale of take the form) large groups. Therefore tigers were come out a badly in legends, but with the exception of protect with a dutiful sons and an exemplary women's tale. Like this so badly images are the same as compared with to Chinese fables. Folktale has get in tiger's outrage, stupidity, and cunning badly archetype were more and more deepend because folktale is the most store away archetype of things among fable genres. Since it is so, this fact proved Korean badly recognition about tiger. Tigers also badly appeared folk song, proverb, and folk customs. Study the

basis of tiger's badly archetype therefore most prominent ideology was humanism. This things proved in fact don't attended lord in Korea peninsula, and however no matter how a right motive don't admission human change into animal. And others, Buddhism was in full flourish at time a Buddhist idea and Confucianism grow in prosperity at time a Confucian idea. Tiger uniformly badly described folktale after all peoples won the war in opposition world. This point finded Korean's being strong democratism. Tiger's an age changes badly images in myth age and folktale age, but some transformation(good image) appeared in legend age.